濟州島服飾의 民俗學的 硏究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71年 11月 日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家政科敎育專攻

高 富 子

高富子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指導敎授 金東旭

審査委員 유희경

안현민

金東旭

梨花女子大學校 敎育大學院

1971年 月

目 次

Ⅰ. 序 論 ····· 1

Ⅱ. 濟州島 服飾의 二重構造 ····· 4

Ⅲ. 濟州島 文化 pattern의 特色 ····· 8

Ⅳ 濟州島에 있어서 京樣式의 大要 ····· 13

一. 官員服(下吏) 儀禮服 ····· 14

二. 新郎, 新婦服 ····· 16

三. 喪衣 ····· 22

四. 市場風景 및 衣服에 나타난 濟州島 服飾 ····· 29

Ⅴ. 濟州樣式의 服飾 ····· 36

一. 乳兒服 ····· 41

二. 農夫服 ····· 44

三. 海女服 ····· 54

四. 牧者服(狩獵服) ····· 60

五. 무명옷 ····· 67

六. 기 타 ····· 69

1. 모자류 ····· 69

2. 雨衣類 ····· 77

3. 신발류 79
4. 民間工芸品 90
Ⅵ. 組織関係 100
Ⅶ 結 論 111
参考文献 115

寫眞 차례

1. 舊式 新郎新婦服, 1950年, 濟州市 ····· 19
2. 喪主服, 1970年, 濟州市 ····· 26
3. 葬禮式 행렬, 1918年, 濟州市 ····· 28
4. 葬禮式 행렬, 1970年, 濟州市 ····· 28
5. 市場풍경, 구덕을 진 老婆, 1971年, 濟州市 ····· 32
6. 남방애 짛는 女人들, 1914年, 西歸浦 ····· 33
7. 남방애 짛는 女人들, 1950年, 涯月面 ····· 34
8. 初生兒服, 붓기창옷 ····· 41
9. 農夫服, 갈옷 ····· 45
10. 女子下衣 갈중의 ····· 49
11. 女子下衣, 갈몸빼 ····· 50
12. 海女, 1955年, 西歸浦 ····· 56
13. 海女下衣, 물소중의 ····· 58
14. 海女上衣, 물적삼 ····· 59
15. 牧者服, 1950年 濟州市 금羅洞 ····· 61
16. 牧者服, 개가죽 두루마기 ····· 64
17. 牧者服, 쇠가죽 두루마기 ····· 64

18 무당, 1950年, 西歸浦 68
19 틸벙것 70
20 가족감투 71
21 정당벌림 72
22 대패랭이 73
23 삿갓 74
24 남바위, 조바위 75
25 도롱이 77
26 나막신 80
27 짚신 81
28 가족버선 83
29 가족버선과 감실신 84
30 국시신 85
31 창신 87
32 징신 87
33 회 88
34 모자류 90
35 宮巾드는 모습, 1920年, 朝天面 朝天里 95

36. 에기구덕, 1971年, 濟州市 98
37. 베짜는 모습, 1951年, 南郡 中文里 104

圖表차례

図 1. 무당옷. 군복차림 19

2. 무기 84

3. 태랑 96

表 1. 新婦의 혼수감준비 17

2. 市場풍경. 衣服 29

3. 市場풍경. 頭飾 30

4. 市場풍경. 신발 30

5. 市場풍경. 들과 31

6. 市場풍경. 연령 31

7. 市場풍경. 나드니 32

8. 農夫服 54

9. 牧者服 66

10. 모자류 77

11. 신발류 87

12. 民俗工芸 技術者수 99

槪 要

本 論文은 現在 濟州島의 服飾을 基點으로 하여 民俗学的 方法論에 의하여 調査 研究한 것이다

筆者는 故鄕이 濟州島인 만큼 그곳의 모든 文化에 接觸할 機會가 많고, 또한 地方文化의 整理라는 點을 感應하여 작은 한 部分이라도 補當하고자 하는 意圖에서 本 論文을 執筆케 된 것이다.

過去 濟州島의 歷史는 歷代로 搾取와 苛斂誅求의 連續이었으며 流配地로 또는 生産手段의 심으로 爲政者들의 그릇된 處事로 인하여 島民들은 많은 犧牲을 當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島民의 모든 生活樣式은 그들의 行政體制에 따라 変貌를 거듭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準하여 服飾関係에도 많은 影響을 받게 되었든 것이다. 濟州服飾을 크게 京樣式과 濟州樣式으로 區別하였다.

京樣式은 官職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上層文化圈內에 있는者를 즉 陸地部에서 任命되어온

者와 그 家族 및 濟州島民으로서 官職에 있는 者들이 지니는 服飾으로 陸地部에서 들어온 形態를 말하며, 濟州樣式은 純粹한 濟州 本島의 土着民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着用하여 온 服飾系統으로 나누었다. 여기에 자연이 二重構造的 樣相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京樣式과 濟州樣式을 區別한다는 것은 사실상 困難한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本島土着民의 固有服도 他地方과의 相互交流에 의하여 어느정도 習合된 形態를 보이게 되므로 그 限界가 曖昧한 일이지만, 支配階級은 그들의 威嚴을 誇示하기 위한 점으로나 또는 儀礼的인 慣例로 그들 나름의 服飾을 갖추었을 것이며, 被民層에서는 生産的으로 또는 氣候 및 環境과 生活習慣등에 適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까지는 過去의 樣式을 그냥 墨守하게 되는 傾向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京樣式으로는 上層 階級圈內에서 使用하였던 것으로 殘存하는 것을 찾아보면, 官員服 및 儀禮

服, 新郎·新婦服, 壽衣로 나누고 濟州樣式으로는 乳兒服, 海女服, 牧者服, 무당옷 및 모자, 雨衣, 신발과 過去 濟州島 婦女子들의 生計를 擔當하다시피 盛行했던 民間工藝品으로 凉太, 宕巾, 총모자에 대하여 調査하였다.

本 調査에서는 島內의 각 博物館 및 個人所藏品인 實物을 重點으로 하여 寫眞으로 볼 수 있도록 했으며, 거기에 따라서 古老들의 證言 및 口傳을 土臺로 整理하였고, 島內에 남아있는 古書 및 기타 文獻과 硏究資料를 얻어 確證해 보려고 努力하였다. 그러나 1948年 發生한 濟州民乱인 四·三事件 當時 거이 전부 燒失하였고 더욱 服飾에 관한 史料가 稀貴하여 服飾의 發生 및 根源, 導入經路를 알길이 없었다.

또한 계속 變貌하는 濟州島의 服飾을 파악하기 위하여 現地 市場風景을 目睹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普遍化 및 西歐化해가는 服飾의 形態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날이 變貌하는 世界의 潮流에 따라

濟州의 服飾面에도 완전히 本島民의 固有樣式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筆者의 本 論文을 土臺로 더욱 자세하고 価値있게 좀더 다른 方向으로 硏究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함에 있어 微弱하나마 이런 作品을 내놓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I. 序 說

우리나라 服飾硏究는 日帝時代 1927年 村山智順의 「朝鮮의 服裝」과 1947年 李如星의 「朝鮮服飾考」에서 그 緖가 열리고 解放後 1961年 石宙善 敎授의 「우리나라 옷」과 1963年 金東旭 敎授의 「李朝前期 服飾硏究」와 기타 論文, 柳彗卿 敎授 및 몇몇분의 論文을 通해 점차 밝혀져 가고 있다.

筆者는 여러분들의 通史的 個別的 硏究와는 달리 濟州島라는 地方的 特色 가운데서 展開된 服飾을 民俗的 方法論에 의하여 이를 整理해 보려고 한다.

筆者가 이런 題目을 擇한 것은 出生地가 濟州道인 만큼 陸地樣式과 다른 濟州島 特有의 服飾을 항상 가까이할 수 있는 環境에 있었고, 地方文化의 整理라는 現時的인 要請을 감안하여 韓國服飾文化에 무엇인가 보탬이 될것을 念頭에 두고 감히 이런 論文을 執筆케로 한 것이다.

이제까지 韓國服飾에 관한 硏究 가운데는 上層階級에 국한한 것 이었고 一個 民族의 主軸을 이루는 庶民의 服飾에 관한 硏究가 없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課題로 두고, 우선 濟州島 服飾의 整理는 우리나라 庶民服飾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考察해 보기로 한 것이다.

本 論文은 濟州島 服飾에 대해 現代를 基點으로 하여 上古時代부터 계속 어떤 形態를 지니면서 発達하여 왔는가를 現存하는 実物과 文献, 口傳에 의하여 硏究한 것이다. 물론 服飾史料는 実物이 가장 重要하나 歷代로 濟州의 歷史는 搾取와 屈辱과 苛斂誅求로 인한 고된 生活로 因해 남긴 物件이나 남겨둘 하등의 값어치를 지닌 것이 있었겠는가고 反向해 본다. 또한 生活難에 쫓기던 島民이 더욱이 服飾에 대한 関心은 과히 큰 問題가 아니였을 것으로 본다.

特히 濟州에 관한 文献중 現存하는 것으로는 1653年 李元鎭 牧師의 「耽羅誌」와 1918年

金錫翼氏의 「耽羅誌」 外에는 드물고 기타 많은 文献이 1948年에 発生한 濟州民乱의 四·三事件 当時 完全 焼失하여 찾을 길이 없었다.

물론 여러 王朝実録等 기타 文献에 조금씩 記載되어 있었으나 濟州土産物의 進上이나 下賜에 관한 것 뿐이었다. 더욱이 服飾에 대한 史料는 全혀 言及되어 있지 않은 정도였다. 그러나 多幸이도 道內 몇 군데의 博物館과 全域에서 個人所藏品 몇점씩의 実物을 얻을수 있었고 古老들의 談을 通하여 微弱하나마 先代의 面貌를 파악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었다.

Ⅱ. 濟州島 服飾의 二重構造

濟州島는 新羅時代부터 朝貢關係을 거쳐 高麗時代는 行政区域의 하나로 定立하여 이후 서울서 내려간 牧民官이 濟州를 즐곳 現在까지 統治해 온 것이다. 이와 아울러 濟州의 土民들로 近源을둔 高, 夫, 良 三姓의 國內 進出로 말미암아 그들이 現官 要職에 올라가고 이리하여 本土民과의 紐帶가 계속되는 동안 濟州在任의 牧民官과 本土에 進出한 濟州의 縉紳들이 지니고 있는 服飾樣式이 부단히 濟州의 上層文化를 支配하게 되어, 여기서 본래의 濟州土着 文化와 이 上層文化 사이의 二重構造(dual system)가 모든 文化를 支配함과 아울러 服飾文化도 規制하게 된 것이다.

이 二重構造는 金東旭 敎授가 指摘한데로 中國制와 國制와의 오랜 伝統속에 즐곳 內在해 온 韓國服飾의 特色이지만 濟州島에 있어서는 우리樣式을 一次的으로 하여 濟州土着民 중의 生活樣式

및 服飾樣式을 그 底辺的인 樣式으로 하여 여기에도 二重構造가 存在해 온 것이다.

그러나 서울서 내려온 官員과 그 家族, 濟州에 있어서의 流配者와 그 家族 및 濟州의 吏屬 上層階級에서는 主로 京樣式을 援用했던 것이다. 아울러 濟州土着民사이에 있어서도 結婚이나 나들이 갈때는 京樣式을 착용하게 되어 이것이 차츰 濟州島 樣式을 構築하여 服飾의 一般化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農業, 漁業, 牧畜業等 濟州特有의 氣候環境에 適応하여야 하는 生業民들에 있어서는 過去의 濟州樣式을 墨守하게 되는 傾向이 있고, 아울러 高麗中葉에 들어온 蒙古樣式이 다시 習合하여 濟州特有의 服飾을 形成 着用해 온 것도 事実이다.

이 가운데는 蒙古樣式이 가장 두드러진 바 있어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濟州特有의 樣式을 形成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나누면 蒙古樣式은 濟州樣式에 吸收된 感이 있고 李朝時代의 京樣式 즉

서울樣式과 日帝時代의 西欧的 樣式이 主된 対立像을 形成하고 있다. 이는 아래에 따로 言及하겠지만 그 大体的 特色은 아래와 같다.

本 論文에서는 크게 服飾의 二重構造를 서울서 官職者로 온 階級 및 本島土民으로 官職에 任命된 上層의 支配階級과 本島土着民으로 庶民階級 사이에 생기는 服飾生活 形態를 二重으로 나누었다. 물론 史料가 充分치 못하여 京樣式과 濟州樣式의 区別이란 曖昧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나 陸地部에서 官職者로나 流配되어 온 者들에 의해서 흘러 들어온 京樣式과 太古이래 큰 変化없이 原型을 그대로 踏襲하여 온 本島庶民 固有의 服飾으로 나누었다.

特히 濟州樣式에 重點을 두었으며 濟州樣式에서는 氣候, 立地條件, 生活習慣, 生活信條, 生業的인 特殊性 等으로 因해 他地方과 다른 形態를 보여왔다.

그 중 乳兒服에서 出生後 3日~7日에 입히는 「붓뒤창옷」, 農夫服의 「갈옷」, 海女服, 狩獵時代

服飾으로 牧者服인 「가죽두루마기」, 「가죽신」, 「가죽장투」 및 民間 工藝品으로 宕巾, 凉太, 총모자 等을 들어 說明한다.

Ⅲ. 濟州島文化 Pattern의 特色

濟州道는 現在 行政 区域上 道 自治体制를 이루고 있으나 陸地와 먼 距離에 있고 絶海孤島인 関係로 古來로 얼마간 濟州 特有의 文化를 形成하여 왔다.

自然環境을 대략 紹介하면, 濟州道는 우리나라 最大의 섬으로 木浦 南方 海上 150 Km 지점인 韓半島 西南端에 位置해 있고 總面積 1819 Km² 로 全國의 1.8 % 가 된다. 높이 1950 m 의 漢拏山을 中心으로 地表는 第四紀 玄武岩으로 噴出에 의해 舊火山体를 形成했고, 따라서 透水性이 強한 玄武岩으로 地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水量이 적어 河川은 乾川이 大部分이며. 돈과 밭은 1:50 의 比率이다.

行政区域은 一市 二郡 三邑 十面이고 二百里洞으로 自然部落은 497 個로 總人口는 1970 年 10 月 現在 370.105 名으로 南韓人口 1.2 % 에 해당되며 1 Km² 에 대한 密度는 約 197 人이다.

또한 바람과 물, 비가 많은 地方으로 風速 4.7 m/sec로 濟州바람의 有名함은 잘아는 사실이다. 多変性 氣候이나 西歸浦의 온화한 氣候는 감귤 재배에 適地로 알려져 있다. 6月下旬부터 7月 上旬에 걸쳐 雨期이며 年平均 降雨量 1,440 mm로 지루한 장마는 많은 不便을 주고 있다.

다음은 中央行政과의 유대를 史的 面에서 考察해 보기로 한다.

濟州는 九聖의 하나로 上古時는 島夷라 칭하였고 代를 따라 東瀛州, 沙羅, 耽牟羅, 儒羅, 耽浮羅 毛羅, 耽羅等으로 変하여 現在 濟州로 1946年 島에서 道制를 実施하게 되었다.

歷史의 紀元은 約 二千年前, 紀元前 65年頃(?) 毛興穴에서 湧出한 三神人인 高, 夫, 良 三乙那를 耽羅國의 始祖로, 하는 三姓 神話에서 始作된다.

皮衣肉食하며 살던 三神人은 東쪽 碧浪國(日本?)에서 온 三公主와 結婚하여 現在 濟州市에서 살게 되었고, 그 後孫중 高厚 三兄弟가 新羅에 入朝하여 國号를 耽羅로 하고 內陸과의 交流가

始作된 것이다. 그後 百濟와는 文周王二年(476年)부터 交流하다가 百濟가 亡하자 다시 新羅와 関係를 맺었고, 高麗太祖20年(937年) 王이 星主王子爵을 주어 屬國이 되었다가 高宗 때 耽羅를 濟州라고 하였다.

元宗12年(1271年) 三別抄가 入島함으로서 갖은 被害를 입었고 忠烈王 元年(1275年) 元나라에서 國号를 다시 耽羅로 고치고 達魯花赤으로 하여 감시케 하였다. 이로써 元에 占領된지 만23年인 1294年 다시 高麗의 屬國이 되었다가 忠烈王21年(1295年) 濟州라 고치고 1369年 元이 亡한 後 高麗朝에서는 星主 高鳳禮와 王子 文忠吉에게 左右 都知官을 주어 1402年 耽羅國号가 막을 내렸다. 이어 계속 李王朝의 治下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3代 太宗때 비로서 中央集权下에 一州의 行政 單位가 된 것이다. 그러나 仁祖는 反政에 成功하여 光海君의 王族을 귀양 보내고 純祖末까지 約 二世紀동안 島民의 出陸을 禁止하고 流配地로서 統治하여 一

和 屬領視했던 것이다.

여기서 筆者는 더 자세히 歷史的 事實을 다룰 必要가 없으므로 言及을 피하기로 한다.

이렇게 濟州歷史는 歷代로 地瘠民貧의 처지를 면치 못하고 蒙古 占據下에서는 二重 國籍人의 生活속에 苦難을 겪어 온 것이다.

元에서는 軍事上, 思政上, 要衝地로 胡牧과 官吏들을 入島시켰고 元이 亡한 뒤에도 계속 居住하여 民心을 不安케 했던 것이다. 이에 忠愍王 23年 崔瑩으로 하여금 完全 소탕을 보게 했으나 約一世紀동안 島民은 蒙古人의 勢力과 高麗朝廷에서 온 官吏의 权勢와 皇主, 王子 사이에서 비참한 生活을 해왔다.

그러나, 三別抄 軍으로 因한 影響은 자못 커서 養蚕方法을 더욱 익혀 衣類生活에 도움이 되었고 本土文化가 傳來되는 契機가 되었으며 蒙古風이 入島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濟州의 服飾은 高句麗系의 基本服飾에 蒙古系의 寒帶服飾인 牧者服, 즉 蒙古風인 毛皮帽, 獸皮衣, 獸皮버선

등 그 殘存物을 비롯하여 言語나 風俗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島民은 氣候関係上 生活에 適合한 服飾을 꾸며 왔을것이며, 農業을 始作한 農民은 좀 더 衛生的이고 經濟的인 面을 고려하여 감의 물을 들여서 입는 갈옷을 생각해 내게 되었고, 또한 바다를 相対로 生業을 가진 漁夫, 特히 海女에겐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特異한 물옷(海女服)을 만들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濟州의 文化 pattern은 孤立的인 面보다 北方系인 大陸樣式에 本島土着民의 南方系 樣式이 習合 調和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Ⅳ. 濟州島에 있어서 京樣式의 大要

前章에서 밝힌 바와같이 京樣式은 陸地部에서 官職으로 任命되어 온 上層 支配階級 및 그 家族들, 또는 流配者와 濟州島 土着民으로 官員이 되어 中央 行政의 惠澤을 입은 階級이 입게된 服飾을 말한다. 또한 陸地部와 交流하게 되면서 부터 濟州 土着民에게 새로이 適用 踏襲되어 온 服飾系統도 포함시켜 말할 수 있다.

대개 陸地部에서 온 官職者들의 服飾은 國內 어느 곳에서나 統一된 形態였을 것이며 時代에 따라 変貌를 거쳐 온 것이다.

또한 官職으로 任命되어 온 者나 官職을 剝奪당하고 流配되어 온 者들의 二重的 服飾 関係도 並存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流配되어 올때 그前에 입었던 平常服도 最尖端을 걸었을 것이며 庶民이 된 그들로 하여금 濟州庶民도 流行을 따르게 되었을 것은 事実이나, 交通이 不便했던 当時의 형편과 物貨購入 関係로 因해 흔히 피지지

는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事実에 관한 文献은 찾기 힘들어 우선 濟州에 現存하는 官員服(下吏), 儀禮服, 新郎, 新婦服, 壽衣 등을 들어 자취를 더듬으며 最近 京様式의 浸透와 함께 日常生活에 普遍化한 実과 最近 市場 風景을 中心으로 変貌해 가는 濟州服飾에 대하여 살펴 본다.

一、官員服(下吏), 儀禮服

官員服은 前章에서 밝힌 바와같이 陸地에서는 上層 階級인 官職에 있던 者와 濟州民으로 그 영향을 받은 者가 着用하였던 服飾을 들수 있다.

國俗에 따라 変化가 심했던 関係로 거슬러 올라 가기 힘든 일이고 또한 國内 어느 곳에서나 같은 形態였을 것이므로 言及을 피한다.

다만 現存하는 것으로 北郡 朝天面에 金炯達氏의 祖父 金郡守께서 70여年前 입으셨던 冠服이

었으나 남아 있을 수 없게 되었고 띠, 혁, 사모, 역시 많이 破損 되었다. 20여年前까지도 衣冠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貴하게 보관하다가 혹은 婚禮時 新郎의 禮服으로 썼으나 新式 結婚式이 盛行한 後부터 그냥 보관하고 있다 한다.

또한 李朝時 禮服이었던 장삼과 족두리도 婚禮用으로 庶民의 女子까지 使用했으나 지금은 当時 遺品은 使用할 수 없이 남았다. 이 외에 官員이 使用했다는 殘有物로는 道立博物館의 흉배 및 기타 博物館에 각띠等이 있으나 確実한 年代를 모르고 있다.

儀禮服으로는 지금도 완고하게 舊習을 지키는 집에서는, 忌祭祀때 儒巾에 道袍를 입으며, 現在 서울의 成均館이나 各地方의 鄕校에서 祭官이 입는 祭服은 濟州의 三姓寺와 鄕校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외에 喪服이 있는데 다음 章에서 자세히 說明키로 하고 약한다.

二. 新郎, 新婦服

開化期 以後 濟州에도 여러모로 新文物이 들어 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変化를 가져 온 것이 婚禮服인것 같다.

新式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가운데 特히 婚姻날의 專用 用語와 같이 되어 버렸다. 舊式 結婚式이라면 男子는 사모관대 차림에 말을 타고 女子는 장삼입고 족두리 쓰고 가마타는 일이며, 約十年前後로 導入된 新式 結婚式은 드레스 차림의 新婦와 洋服 차림의 新郎을 연상하게 된다.

이 舊, 新式도 時代에 따라 많은 変化가 있었고 貧富의 差에 따라 차림도 달랐으나, 빚을 얻어서라도 格式을 갖추고 잘 차려야 한다는 観念때문에 많은 딧 애기를 남기게 했다.

우선 많은 年代를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고 1910 年代와 現在까지를 比較해 본다.

혼수감 마련은 新婦側에서 一切 책임을 지는것이 濟州 固有의 特異한 風俗으로 '딸 셋이면 門열고 장잔다.'는 俗談이 나올 정도로 많은 딸

을 가진 父母님은 큰 負担이었다. 고로 新婦의 持参物은 父母가 全担하기에 힘이 들어 많은 처녀들은 길쌈이나, 방건, 망건, 양태 作業과 海女로 從事하여 혼수감 準備에 餘念이 없었다.

憲奭1. 舊式 新郎, 新婦服, 1950年, 濟州市

1910年代	1940年代	1960年代
이불 1채	이불 2~3채	이불 3~5채, 화로 1개
누비이불 1채	요 2채	요 3채, 방석 4~5개
요강 1개	방석 4~5개	이불床 1개, 솥 3~4개
빗접 1개	이불床 1개	이불欌 1개, 세수대야 1개
	경대 1개	화장솜 1개

表1. 新婦의 혼수감준비

위에 나타난 포목의 내용은 1971년 8월 필자가 濟州市 금羅洞 婦女子들의 談을 통하여 평균수치를 기재한 것이다. 그러나 現在는 혼수 準備에 어느정도 双方타협이며 実用的이고 간단하게 마련하나 過去에는 혼수차림에 차해 서로가 굉장한 関心事로 여겨왔던 것이다.

다음은 納幣와 礼狀에 대하여 들어본다.

納幣는 (홍세미명) 무명 乙匹 또는 4匹 (혹은 広木一통)을 쓰는데 「홍세함」이라는 納幣函 속에 礼狀과 같이 넣어 붉은 보로 싼다. 지금은 上客이 들고 가지만 예전엔 마을의 례집下人이 등에 지고 말을 타고 갔었다.

媤宅의 웃 어른은 新婦한테 当日 옷한벌씩을 주고 새댁은 報答으로 人事드릴때나 名節때 버선을 선사하는게 慣例로 되어있다.

濟州에서 '암창개'라는 結婚風俗이 있다. 이것은 約婚引 結婚前에 新郎側에서 喪을 당했을때 結婚 当日은 新郎側의 上客과 下人이 新婦가 타는 가마에 흰 무명을 씌우고 無色의 옷을 입혀

데려온 뒤 寢服을 입히고 床에 拜礼케 한後 食床을 받게한다. 지금은 이와같은 風俗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은 結婚式날 新郎, 新婦의 服飾에 関하여 舊式으로 結婚式을 했던 사람의 例를 들어 보면 50年前의 風俗을 엿볼 수 있다.

66年前 17才때 結婚한 강모열(女)氏는 「흰 명주 치마에 초록色 명주 저고리를 입고 원삼 달린 장옷을 입었으며 머리는 뒷머리로 하여 얹었고 다시 머리에 푹 쓰는 장옷을 입었다. 신은 창신을 빌려 신었다」[註1)]

64年前 結婚한 이달빈(男)氏는,

「명주 바지 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짚신을 신고 말을 탔다. 女子는 흰 명주 치마에 초록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장의를 다시 입었다. 머리는 얹은 머리라고 하여 달비를 여러개로 해서 머리위에 얹었으므로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註1). 1971.8 강모열 談(女) 83才. 南濟州郡 大靜邑 仁城里, 農業 (漢文受学).

못 들었고 심지어 벗겨지는 일이 있었다. 머리 위로 다시 장옷을 들리 쓰게 했으며 長距離일때는 獨轎에 말을 앞 뒤로 메워 태웠고 短距離일 경우 앞 뒤 사람이 가마를 들고 다녔다. 또한 結婚式 행렬이 지나가면 거리 가던 사람도 고개를 숙여 경건히 祝賀의 뜻을 表했다. 그러나 이런 現狀들은 지금은 볼 수 없다.」[註2)]

53年前 16才때 結婚했다는 강정출(女)씨는,

「흰명주 치마에 초록 명주저고리를 입고 원삼 달린 장옷을 입고 머리는 뒷머리를 감아 올려 얹었고, 그 위에 다시 장옷을 쓰고 신은 상신을 신었다. 日帝時代는 유똥이 수입되어 명주보다 많이 利用 되었고, 그 뒤는 양단이 나오기 始作해서 호화롭게 차렸다.」[註3)]

지금은 舊式 結婚式을 山間 村마을 아니면 보기 힘들며 여러가지 번거로운 事情때문에 新式을

註2) 1971. 8 李達彬 談,(男) 79才. 南海郡 中文面 中技里, 農業 (漢文受学)

註3). 1971. 8 강정출 談,(女) 69才 南海郡 安德面 倉川里, 農業 (現在 김한의 安德面長님의 母)

願하고 있으며 舊式衣服을 求할 길이 없어 더욱 할 수 없게 되었다.

新式 結婚式이 本道에 들어 온 것은 20年前後이며 처음엔 濟州市 開化한 家庭에서 시작 했을때 驚愕도 했지만 是非의 對象이 되기도 했다

陸地部와 똑같은 形態로 新郎의 차림은 洋服이었고 新婦 차림은 흰색 한복에 머리를 푹 덮는 긴 비울에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앞에는 5~6세 정도의 女子아이 2名을 꽃뿌리로 세웠다.
그 後 10여年前부터 各樣各色의 드레스 차림으로 變하여 行하고 있다.

以上에서 論述한 바와같이 가장 一生을 즐겁고 意義있는 날이라는 點에서 必要 以上의 虛礼虛飾을 하며 살아온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濟州固有의 風俗이라기 보다 時期는 늦지만 陸地部에서 흘러 들어간 點에 共通性이 보인다.

三. 壽衣(호상옷)

本 고장에선 언제 어떻게 伝來되었으며 過去의 形式이나 現在와는 어떤 差異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가난에 시달리던 島民들이 生前의 衣食生活에 급급하여 死後 問題까지 생각할 수 없었으리라 믿는다. 屍身에 입히는 것도 生前 입던 것을 입히거나 같이 넣고 묻어 버리는 정도였을 것이다.

또한 国法의 禁制로 家風과 地位에 따라 限定되었었다 하니 더욱 갖추기 힘이 들었을 것이다.

国末 混乱期와 차츰 文物交換이 빈번해지고 紡織技術이 普及됨에 따라 富者나 관리階級에서 호사스럽게 格式을 차리는 風이 생겼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많은 種類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格式을 全部 갖추는 家庭이 드물고 貧者들은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 입히고 있는 実情이다.

壽衣의 가지수는 石宙善교수의 「우리나라 옷」에 있는 것을 基準으로 했다.

壽衣를 가장 많이 만들었다는 김혜정氏에 의하면,

「結婚때 입었던 옷들을 환갑時 입고 死後는 호상옷으로 했다. 富者들은 따로 結婚할때 父母가 해 줬으나 극히 드물었고 結婚衣服도 동네에서 삯을 내어 입었던 関係로 가난한 집에서는 白色 마포로 해서, 生前 입었던 것이나 아니면 餘有있는 집안에서는 해 두었다가 입혔다.

바느질法은 살았을때 準備해 두는 옷은 손으로 만들거나 재봉틀 아무 것이나 무방하지만 죽은 뒤에 만들때는 반드시 손바느질을 하고 뒷 바느질은 禁했다.

文子의 壽衣 品目으로는 나삼(원삼), 과두바지, 지금(명주 안팎 6자), 천금(13자), 맹전, 오색한삼, 버선, 악수, 설멩지, 맹목, 소낭, 댕기, 현운, 저승돈을 준비하며 이것은 가장 호화롭게 잘 차리는 것으로 品色이로 하고 속에 입히는 속중의, 속치마(단속곳), 걸치마, 저고리도 2仙씩 準備한다.

材料는 명주나 마포로 하고 무명이나 化学섬

유는 절대 쓰지 않는다.

무명은 屍身이 썩을때 새까맣게 되어 옛부터 쓰지 않았다는데 祖上들이 마포를 먼저 使用하던 習慣이 있어 그런것이 아닌가 한다.」註4)

筆者가 濟州市 및 濟州道內 全域에 걸쳐 71年 8月 1日부터 15여집을 調査한바에 의하면 모든 格式을 갖춘 집은 들과 세家口 정도였고 대개 官職을 지냈거나 아니면 近來에 子孫이 번창하여 잘사는 집을 제외하고는 거의 겨우 形式을 갖추었다는 정도이고 심지어는 임종에 임박한 老人집에서는 여름 삼베 나들이 옷을 빨아서 두었을 뿐 이었다.

男子 壽衣는 비교적 單純하다. 白色계통이며 악수, 명모만 검정色이다.

도복, 악수, 명목, 대렴포, 버선, 바지, 저고리, 과두, 오낭, 창옷(두루마기), 저승돈이 일습이고 과히 신경을 쓰지 않으며 襲甲時 마련했다가 입히

註4). 1971. 1. 金惠貞 談, (女) 92才 濟州市 一徒里.

거나 生前에 몇번 입던 것을 입힌다.

옷의 形態는 他地方에서 입히는 것이나 生前에 입는 한복의 基本 形態와 같고 貧富에 따라 差異가 많으므로 省略하고 葬礼(祭礼)에 차하여 살펴본다.

. 葬礼準備는 餘裕가 있는 사람은 老後 스스로 棺板과 蓋板, 壽衣를 마련하는데 명주를 쓰며 還甲이나, 回甲. 回月에 만든다.

. 소낭(대낭)은 명주나 窓戶紙로 五仞 만들어 머리털, 左足. 右足. 左手, 右手의 발, 손톱을 깎아 담고 넣는다.

. 幅手는 검정 명주로서 장갑形態이며 양손에 끼우고 과녁은 허리에 두른다.

彩色壽衣(호상옷)를 입힌 뒤 黑色壽衣 : 深衣(男 : 검은 호상)를 입히고 베 12尺의 두름포로 屍身을 싸서 7묶음으로 묶는다. 黑色壽衣는 갈차리는 집이고 두루마기 形態로 큰 소매가 달린 것이다.

入棺時 명주로 된 天衾, 地衾을 屍身의 위,

아래에 깔고 덮는다. 이것을 속에는 雪綿子(설맹자)를 넣으며 棺 빈곳에 補空으로는 故人이 입던 베옷, 명주옷 等을 넣는다.

圖寫 2. 喪主服, 1970年, 濟州市

喪主의 喪服으로는 喪制는 喪을 당하면 신었던 양말, 버선을 벗고 아래 옷의 밑을 걷어 올린다. 過去 상투 땠을때는 상투를 풀어서 짚이나 꼬나 풀로 집어 매었다.

收屍後는 喪制는 통頭巾 (윗 끝이 벌려진 채 만들지 않은 頭巾)을 쓰며 윗옷 팔 한쪽을 떼내 버린다. 入棺後 喪服을 입고 상투를 매면 三年까지 고치지 않았다.

父喪일때 頭巾의 실밥을 밖으로 내어 만들고 母喪일때 보통 頭巾과 같이 만들며 윗 끄트머리는 다시 한번 바깥으로 바느질 한다.

男喪制는 등뒤 左右와 앞가슴에 「두지게표」란 헝겊(베)를 달고 女喪制는 從前부터 服手巾을 쓰나 요즘은 머리 뒤이 갑절쯤 되는 베 헝겊을 쓰고 巾帶를 동그랗게 두르기도 하며 베로 만든 服치마에 흰저고리를 입는다.

또한 女 喪主의 너울에 관하여 崔貞淑氏는 「지금부터 40여年前後는 女子는 너울을 썼는데 마포 1匹을 4幅으로 접어 2幅은 길게 다른 2幅은 짧게하여 행상 나갈때와 下棺時 哭할때 앞뒤로 가려서 썼다. 이것은 濟州 特有의 風俗이었고 너울을 마련 못할 경우 빌려서 使用했으나 貧者들은 할 수 없었고 濟州市內에서도 극히 드물었다.」[註5] 고 말하고 있으나 너울은 陸地部에서는 過去 婦女子들이 썼던 여러가지 形態의 変型

註5). 1977. 1. 崔貞淑 談, (女) 73才. 濟州市, 前敎育監.

인 것이고 마포로 만든 너울은 葬礼式專用이었을 것이나 濟州市에서도 극히 보기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寫眞 3. 葬礼式 행렬, 1978年, 濟州市
婦女子들의 코머리가 보이며 손에 든 것은 마포 1필로 만든 너울이다. 지금은 너울을 사용하지 않는다.

寫眞 4. 葬礼式 행렬, 1970年, 濟州市.

Ⅲ. 最近의 市場風景과 衣觀해 가는 濟州島 服飾

市場의 風景은 그 곳 住民의 日常生活을 나타내 주는 좋은 資料이다. 生活必需品, 日用品, 즉 衣食의 諸般 形象을 把握할 수 있으며 그들의 言語를 通한 生活觀 내지 人生觀을 더듬을 수 있다.

다음은 筆者가 1971年 8月 濟州市에 있는 五日市場을 3回에 걸쳐 觀察한 資料를 整理한 것이다. (對象, 男10名, 女100名).

衣服関係

女子

回数 / 衣服	1回	2回	3回
한복	1명	—	1
치마 부라우스	95〃	95	92
바지 부라우스	2〃	2	—
잠옷	—	1	—
원피스	2명	2	1

男子

回数 / 衣服	1回	2回	3回
바지 저고리	—	1	3
바지 남방	10	9	7

表2. 市場풍경, 衣服.

頭飾

女　　子

回数 / 頭飾	1回	2回	3回
파라솔	40	45	41
밀집모자	56	50	58
수　건	4	5	1

男　　子

回数 / 頭飾	1回	2回	3回
밀집모	7	6	7
운동모	1	—	—
중절모 (나까오리)	—	1	—
無	2	3	3

表3.　市場풍경.　頭飾.

신 발.

女　　子

回数 / 신발	1回	2回	3回
고무신	97	98	95
스리퍼	3	2	5

男　　子

回数 / 신발	1回	2回	3回
고무신	6	5	7
스리퍼	2	4	3
구　두	2	1	—

表4.　市場풍경.　신발.

들기(女子)

回数 / 들기	行人			商人		
프라스틱바구니	70	68	68	20	15	14
구덕지기	25	22	25	17	21	20
프라스틱바켈스	3	7	3	5	3	3
보자기	2	2	3	8	9	11
푸대	—	1	—	43	47	49
리어카	—	—	1	7	5	3

表5. 市場풍경, 들기.

연령(女子)

回数 / 연령	1回	2回	3回
60세 이상	3	2	4
50세 〃	10	10	9
40세 〃	30	35	35
30세 〃	50	48	49
20세 〃	6	2	2
20세 이하	1	3	1

表6. 市場풍경, 연령

나르기(女子, 行人)

나르기 \ 回数	1回	2回	3回
들기	93	90	93
지기	5	8	7
이기	2	2	—

表7. 市場 풍경, 나르기.

以上 調査된 바를 綜合하면,

衣服

여름철이며 바쁜 農事철이기 때문에 実用的인 치마나 부라우스 차림의 女子가 많으며.

寫真5. 市場풍경: 구획을 긋는 老婆, 1971年, 濟州市.

신발.

돌이 많고 포장이 안 되 있으며 市中에서 比較的 長距離이기 때문에 고무신을 신은 사람이 거의 全部이고,

모자수식.

女子는 밀짚모와 과라솔, 男子는 밀짚모가 많다. 집나르기 現象은 陸地部와 같이한 점으로 머리에 이는것 보다 손에 드는 者가 많다.

윗 事実에 대한 結論은 限定地域인 濟州市와 流動人員 男10, 女100 名에 대한 調査로 신빙성이 희박하다할 수 있겠으나 대강의 흐름을 把握한 듯에 重点을 두고저 한다.

最近 濟州의 樣式은 衣食住 全般에 걸쳐 많은 変貌를 가져오고 있으며 서울과도 1日 生活圈에 살수있는 交通기관의 発達 및 日本과의 国際空港

寫真6. 남방에 짤는 女人들, 1914年. 西歸浦.

開設 및 觀光地로 因해 조금도 絶海孤島라는 인상을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過去의 中央集权 体制 및 관료的인 形態에서 벗어나 신새로이 接觸할 수 있는 現代文明의 흐름을 즉각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곳에서 일 것이다

濟州의 남방에 짐는 女人들, 1950年 涯月面.

農夫服인 갈옷이 衛生的이고 經済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거의 나이롱으로 代置하고 있으며 草家집은 2年에 한번씩 지붕을 갈아 덮고 엮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고 住宅의 改良 問題로 因해 簡素化하는 実情이다.

지금 모든 社会 発達 関係는 国家的 支援과 在日교포의 補助로 国内의 어느 곳보다 눈부신 発展을 하고 있다.

特히 교포의 內往으로 因해 衣類 및 各種 物資의 導入으로 濟州 道民에게 모든 生活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衣類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더 말할 나위 없겠다. 또한 濟州 固有風이었던 돌 담벽진 처녀라는 것은 中山間 部落까지 완전히 水道施設이 되어 있어 奉天水를 먹는 곳은 山村 部落에서 아니면 구경할 수 없다.

Ⅴ. 濟州樣式의 服飾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濟州 土着民이 많이 입고 갖추어 있는 것을 濟州樣式으로 区分했다.

衣服 発生이 特定한 사람에게서만 許用되던 것도 있었지만, 어느 한곳에서만 이루어 진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庶民層에서 踏襲하는 모든 樣式은 유구히 변함이 없는 것이다.

우리 服飾의 基本型인 바지, 저고리는 上古時代의 壁画에서 볼 수 있고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形態와 製法에 약간의 変化가 있을 뿐 그냥 存続하고 있다는 事実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濟州 特有의 衣服이라고 指摘하여 発生年代와 根據를 찾기란 文献과 実物 그자 立證資料가 전혀 없어 곤란하나 陸地部와의 交流関係에서 直接, 間接으로 많은 影響이 컸으리라 믿는다.

다만 氣候, 風土, 地理的 條件, 生活風俗, 生業的인 差異에 따라 要求되어지는 形態가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章에 자세히 說明하겠지만 濟州 特殊의 固有服인 「갈옷」은 한복의 바지. 저고리에 감물을 染色한 것만 다르며, 牧者들이 입었던 가죽옷 역시 陸地部의 山間地方 차림의 옷과 같은 形態일 것이나 材料等이 조금씩의 差異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

濟州의 服飾은 항상 搾取와 流配地로서의 屈辱의 섬으로 受難을 받았던 歷史的인 事實을 미루어 보아도 支配階級은 支配階級대로의 衣服의 形態가 있을 것이고, 陸地 땅을 밟아 보지못한 土着 庶民의 固有한 服飾이 同時 存在했지만 자세한 內容 把握은 힘든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濟州 服飾에서 有意할 点은 濟州는 大陸과의 交易뿐 아니라 日本 오끼나와等 南쪽의 여러 熱帶地方의 영향을 더러 입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服飾을 北方系, 南方系로 나눌때 南方系의 始初는 우리나라로서는 濟州에서 비롯했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우선 文献에 記録된 바를 살펴보면 濟州 始祖로 보고있는 三神人은 皮衣를 입었다고 한다.

中枢院 調査課編에

「, 三人遊獵僻。 皮衣肉食。 有紅帶紫衣使者.
開石函。 出現青衣處女皮諸一。」 註6).

라하여 皮衣肉食의 生活에서 바다 건너온 세처녀의 使者 紅帶紫衣와 青衣 세처녀에 대한 服飾을 말하고 있다.

또한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 有胡 在馬韓之西海中 大島上 其人差短少 言語
不韓同 皆髮頭如鮮卑但衣韋 (韋는 가죽)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 註7)

로 가죽 윗 옷만 입고 아래 옷은 안입었다는 事実은 氣候가 比較的 온화한 南쪽이기 때문에, 또는 狩獵, 農耕時代인 原始時代이므로 羞恥心,

---

註6) 世宗実録地理志, (京城: 中枢院調査課編 1934), P. 223.

註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 三十八.

儀礼觀念이 없던때이므로 그랬겠지만 被服材料의 購入問題를 생각 안할 수 없다.

唐書에 적힌 耽羅의 習俗에는

「儋羅人의 풍속은 朴陋하여 큰 豚皮로 衣服을 만들어 입고,」[註8] 라 하여 짐승의 가죽을 使用하여 몸을 保護한 것이 나타나 있다.

또 高麗時代의 濟州를 나타낸 말에는 「事文類聚」에 依하면 蘇州에 표착한 耽羅人들은 官服과 衣冠制度가 唐制와 같았다고 한것은 当時 麗朝에서 中国의 唐制를 받아 들였을 때이므로 官職者들의 옷이 中央에서 내려온 것임을 말해 준다.

위의 事実로 보아 濟州島의 先祖들은 애초 農耕生活로 原始的인 生活을 하며 살았고 거기서 取한 짐승의 가죽으로 추위를 막았음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정괴정 밥줄은 있어도 미정괴정 옷줄은 없다."는 濟州俗談은 얼마나 옷이 貴했던

註8) 濟州年鑑, (濟州: 濟州年鑑社, 1969), P. 147.

가를 表現해 주고 있다.

洪貞杓氏에 依하면,

「濟州는 옛부터 옷이 귀했다. 옛부터 내려오는 인삿말에 "식사하고 가시오"는 있지만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옷한벌 주어 입힌적은 없다. 새 옷이 헤어지면 꿰매고 또 꿰매어 누더기가 되어 누비옷 이상이었다. 조금이라도 틈 떨어진 곳이 있으면 도려내고 큰 옷은 작게 만들어 실한 오라기라도 그냥 버리는 일은 없었다」[註9] 그러므로 칡덩굴로 삼베옷을 만드는 것으로하여 近來의 무명 짜기에 이르기까지 自給自足의 形態로 차츰 衣料을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濟州樣式의 服飾을 들면 아래와 같다.

註9) 1971.1 洪貞杓 談, (男) 64才 濟州市 三徒一洞, 現在 濟州文化院長 및 제주관광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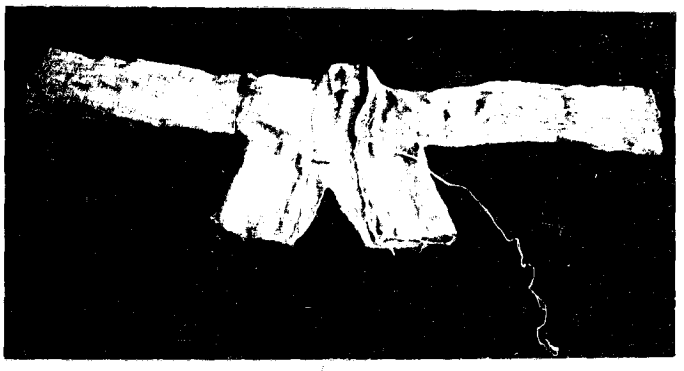
一. 乳児服(初生児)

, 三, 七日 옷

봇뒤창옷(봇뒤적삼).

베(麻布) 三尺 정도로 소매와 품을 넓고 길게 만들어 生後 3~7日 사이에 初生児에게 입혔다.

봇뒤창옷이란 봇을(子宮) 떼고 난 뒤 입힌다는 뜻이며 적삼은 베홑겹을 말한다.



寫眞 8. 初生児服: 봇뒤창옷

소매는 넓고 길게 했고 옷고름은 여러번 꼬운 실을 달았다. 실을 길게하는 理由는 長寿하라는 意味에서이며 뒤쪽은 네·소변때 더러워짐을 防止하기위해 뒷다.

또한 강신한氏의 말에 의하면,

「첫 아들이 입었던 이 옷은 特히 재수(운수)가 좋다고 하여 잘 보관하였다가 다음 동생들에게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뜻에서 물려 입혀주며 家庭에 訴訟事件이 생겼을 경우, 事件에 관련된 家族의 勝訴를 위해 衣服 등뒤쪽에 누비어 붙이며, 出征時에도 武運長久를 빌며 등바대로 붙이는等 귀하게 다루는 옷이었다」[註10].

임방신氏의 말에 의하면,

「베(麻布)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理由는 過去에는 生産的關係 즉 紡織關係도 있었다고 보겠지만 피부를 자극함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인내심, 강인성을 길러주며, 자란 뒤에도 피부염, 간지러움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서 옛날부터 입혀 왔다.」[註11].

註10) 1971.8 강신한 談, (男), 83才 南海郡 安德面 楸山里 農業 (漢文修學)

註11) 1971.8 임방신 談, (男), 79才 南海郡 大興面 保城上洞 農 (〃)

이 옷에 대해 着用 始初에 대한 記錄이 전혀 없으며 언제부터라고 거슬러 올라가긴 어려우나 다만 濟州 本土民들이 베를 짜서 입으므로써 시작되지 않을까하고 추측이 간다. 그러나 지금은 多量의 좋은 섬유生産 및 初生兒의 피부는 극히 연약하므로 잘 保護해야 한다는 医学的인 面에서 전혀 입히고 있는 곳이 없으며 옷 自体를 보관하고 있는 집도 없다.

임방신氏에 의하면 10여年前만 해도 南濟州郡 大靜邑에서도 집집마다 입혔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한다.

. 百日옷, 돌옷

위나 궁핍하여 어린애의 百日과 돌을 위해 새 옷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여유있는 집에서는 어린애의 百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련하느니 한 벌쯤 한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生活이 어느 정도 安定되고 商品化한 갖가지 옷을 마련하기에 쉬우므로 特別히 마련해 입힌다.

男子일 경우 도령차림, 女子일 경우 한복차림으로 많이 입히고 있으나 보통 平常服을 사서 새 옷을 입히어 記念촬영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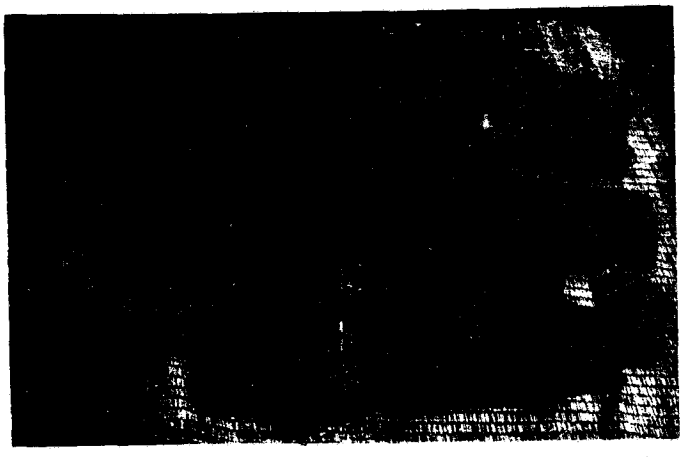
二. 農夫服(柿汁衣類) - 갈옷

南國의 歲時 風俗에 依하면

「濟州島 農民의 전형적인 勞動服으로 가장 많이 使用되어 왔고 庶民들의 平常服이라고 할만큼 밀접한 関係를 가진 衣類이며 이 갈옷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여 입었는지 기록이 전혀 없다. 어떤 사람은 등고의 風俗이라고 하지만 근거가 애매하다. 지금부터 약 700 여年前 한 고기잡이의 할아버지가 낚시줄이 자주 끊어짐을 민망히 여겨 감물을 染色한 결과 질기고 또한 고기도 더 잘 잡혔다는 전설이 있다.」[註12] 고하나

註12) 秦聖麒, 南国의 歲時風俗, (濟州: 濟州民俗文化研究所, 1969), P.259.

확실히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農業과 漁業等으로 生計를 維持해 온 本島民에게는 옛부터 便用해 온 것만은 事実이다.



寫眞 9. 農夫服, 갈옷.

材料, 染色方法, 形態 및 種類, 特徵, 長点을 살펴보면,

材料

過去에는 各家庭에서 베틀을 便用하여 짠 무명으로 農家에서는 거의 自給自足 이었으나 지금은 市販되는 무명을 사서 옷을 만들어 물들여 입거나 직접 만들어진 옷을 사 입기도 한다.

染色方法 - 감물 들이기

7~8月頃에 풋감을 따서 남도구리(나무로 만든 큰 그릇)에 놓고 텀드렁막개(나무로 된 것으로 짧기 좋게 만들어짐)로 감을 짓이겨서(으깨서) 汁을 낸다.

옷을 남도구리에 띄 놓고 汁과 짓이긴 찌꺼기를 사이 사이에 넣어 가며 주무른다. 汁이 부족하면 물을 조금 섞어가며 완전히 젖도록하여 골고루 스며든 뒤 찌꺼기는 털어내고 옷 모양을 잘 다듬는다.

햇볕이 고루 잘 비치는 곳에 멍석이나 지붕위나 평평한 돌위 혹은 잔디 위에 모양을 반드시하여 널다. 마르는데로 앞 뒤를 바꾸 널다 이때 물을 추려 주어야 골고루 잘 染色이 되며 습하거나 장마가 계속되면 色이 나빠지거나 풀이 죽어 좋은 品質이 못된다.

여름의 直射光線에서 약 10日정도 말리면 차차 황토빛 색갈이 짙게되고 빳빳하여 풀먹인 옷처럼 된다.

여기에 使用되는 감은 陸地에서는 紅柿나 곶감을 만들어 一種의 嗜好食品으로 먹고 있으나 濟州에서는 主로 갈옷을 만들기 위해 시골에서 1~2그루 심어 野生시키는 정도이며 크기는 直徑上下 약 3~4 cm이며 씨가 많다.

形態 및 種類

갈옷들의 명칭은 男女 上衣는 柿汁褲衣로 갈적삼이라 하며, 男子 褲衣를 갈중이, 女子 褲衣는 갈굴중이라 하지만, 男女 共通으로 上衣를 갈적삼, 男女 共通下衣를 갈중이로 통칭 부르고 있다.

이 옷들의 形態는 한복 基本型의 저고리, 바지, 단속곳(굴중이) 과 同一하나 갈몸빼와 같은 形態도 있다.

男子上衣(갈적삼).

보통 男子用 저고리와 같은 形態이며 홑겹으로 만들어 고름을 달지않고 둘마키단추(直徑 1 cm 정도의 매듭단추)를 달고 동정은 없다. 조금 다른 형태로는 男子用 마고자와 같이 만들

어 깃과 고대쪽을 조금 둥글게 파고 앞은 단추를 달고 양쪽에 포켙을 달며 길이는 보통 저고리보다 훨씬 길어 등을 푹 덮고 허리뒬까지 오도록 되어 있다. 등바대와 젓갱이 바대는 옷의 견고와 강인성을 주기 위해 붙이는 것이다.

男子下衣 (갈중이)

보통 男子用 바지와 똑 같기 때문에 省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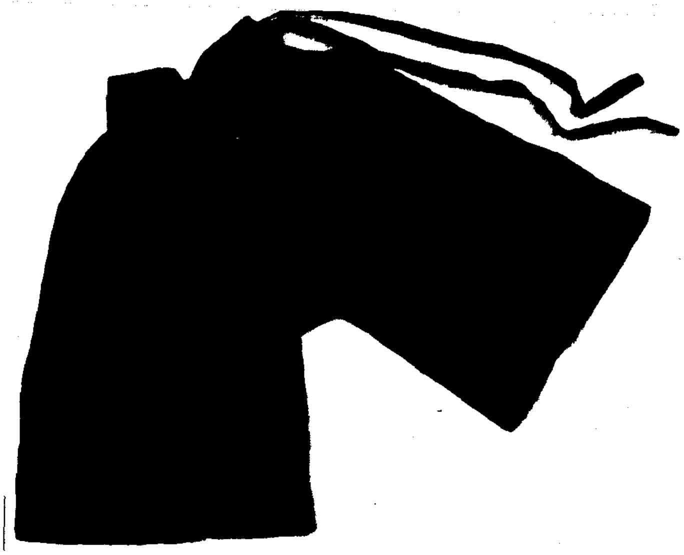
女子上衣 (갈적삼).

보통 女子用 저고리와 同一 하다. 적삼과 같이 만들어 돌마키단추를 달고 동정과 옷고름은 없다. 등길이 .치수를 조금 길게 한다.

女子下衣

갈중이 (굴중이)

단속곳과 같다.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래 부리 (단) 부분이 직선으로 쭉 퍼져 내려와 굉장히 넓게 만들어 입었고 20~30年前만해도 허리는 앞쪽과 뒤쪽 2等分으로 나누어 허리끈은



寫眞 10. 女子下衣 : 굴중이

앞쪽을 먼저 매고 그위로 뒤쪽 끈을 앞으로 매어 바쁠때는 뒷 허리 부분의 끈만 풀어 대,소변을 보았으며 또한 아래 부리 부분이 넓어 그 어느 한쪽으로도 利用 했었다 한다.

길이는 体軀에 따라 差異가 있으나 허리서 부터 발목 조금 위로 오게 만들어 정갱이 위에서 독대님을 쳤다. 독대님은 헝겊(감을 들인)으로 보통 대님과 같이 만들어 묶기도 했고, 칡덩굴 혹은 아무런 끈이라도 使用하여 固定시켰다.

. 갈 몸빼

사진에서 보는바와같이 몸빼는 日帝時代 女性 勞動力을 利用할 계획으로 日本人이 만들어 낸 것으로 경제적 및 활동적이며 굴중이 보다는 폭이 좁으면서 발목 조금 위로 올라오도록 하였으며 꼭 잡아 묶지 않아도 便利하게 적당한 넓이로 주름을 넣어 만들어진 것으로써 現在는 갈중이 (굴중이) 보다 모두 이 몸빼를 利用하고 있다.

寫眞 11. 女子下衣 : 갈 몸빼.

갈옷의 特徵및 長点

풀을 메기지 않았지만 柿汁에 依해 빳빳해지므로 처음에는 피부를 약간 자극 시키는 것 같

으나 몇번 입으면 부드러워지며, 부지런한 農民들의 勞動服으로는 가장 좋은 옷이다.

그 長点으로 經済的인 面, 衛生的인 面, 時間이 短縮되는 점, 세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다.

經済的인 面.

감물로 염색된 것이어서 쉬 더러운줄 모르고 또 더러움이 덜 타므로 洗濯時 꼭 비누를 使用할 必要없고 항상 물해서 새 옷 입는것 같은 촉감으로 빳빳하므로 풀 하거나 다른 간 손질을 할 必要가 없으며 한벌이면 그포정도 입을 수 있게 된기다.

衛生的인 面.

柿汁은 防腐劑가 되어 땀 묻은 옷을 그냥 두어도 곧 썩거나 상하지 않고 썩은 냄새도 나지 않으며 通氣性이 좋다. 夏節期 勞動할 때는 몸에 달라 붙지 않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며 이슬 맺힌 풀밭 일을 해도 곧 젖어지지 않고 물

방울이 떨어지며, 질기기 때문에 풀이나 가시 덤불 위에 다녀도 쉽게 상처를 입지 않는다. 또한 먼지나 보리 가스랭이 따위의 지전 汚物이 쉽게 붙지도 않고 붙어도 곧 떨어진다.

) 時間이 短縮된다는 점은 옷 만드는 과정부터 技巧가 必要치 않아 基礎 마름질法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해 입을 수 있고 바래는 과정(染色)에서 약 10日間 工程이 必要하나 問題時 되지 않는다. 쉬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洗濯을 자주할 必要性이 없어지고 젖어도 곧 잘 마르며 푸세 공정이 없으므로 바쁜 農民의 일손을 덜어주는데 그 어떤 옷보다 값어치가 있다.

이 와도 같옷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讚辭를 보내고 있다. 增補耽羅誌에는 「男女間 作業服에는 全部가 柿汁으로 染色한 朱黃色 木綿服이니 풀(糊)먹일 必要도 없고 勞動하다가 몬지(塵)가 묻으면 입은채로 沐浴하면 「고무」옷 모양으로 물도 금시 빠지고 몬지도 빠져 実로 經濟的이요 또 衛生的인 衣服으로서 勞動者에 在

하야는 無上의 考案이라 생각한다」[註13)]

烏樂基氏도,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国産 나이롱에 못 지않는 労動服으로서 질기고 簡便하고 經済的이다」[註14)] 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姜渭聘의 柿衣免禍라 글이 있다.

「皇城에 이르러 裸体로 刑을 심문할 때 갈옷이 나타나므로 刑官은 처음으로 갈옷을 본데 놀라서 怪異하게 여겨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濟州의 農夫의 옷인데 밭일을 하는 날 王命이 忽然히 내렸으므로 이것을 벗을 겨를이 없었읍니다." 고 하였다. 刑官은 그 事情을 들을때 불쌍한 생각이 나서 임금께 여쭈어 赦免하였다」[註15)] 그 한다.

앞에서 쓴 바와같이 갈옷과 濟州島民과는 뗄수 없는 関係이며 外国産 나이롱에 못지 않는 長点

註13) 增補耽羅誌, (濟州: 1954). p.299.

註14) 烏樂基, 濟州島, 大韓地誌 I, (濟州: 1965). p.20

註15) 高炳五; 朴用厚, 元大靜郡誌, (濟州: [illegible]文出版社, 1968), p.122.

을 지닌 勞動服으로서 陸地部 農家에서도 못히 使用할만한 勞動時 제일 좋은 옷이라 하겠다.

農夫服에 대해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갈옷 이외의 부속물은 다음章에 설명하기로 한다.

		대상	上 衣	下 衣	頭 飾	靴,鞋,鞋	비 고
여름	맑은날	남	갈적삼	갈중이	정당벌립, 대패랭이 삿갓, 패랭이	짚신	※털벙것 -1906年前은 軍帽
		여	갈적삼	갈굴중이, 갈몸뻬	수건, 대패랭이 삿갓, 패랭이	짚신	
	우천	남	上 同	上 同	털벙것※ 삿갓	나막신	※무명누비옷 -헌옷 누빈것임
		여	上 同	上 同	삿갓	나막신	
겨울		남	갈적삼, 무명누비옷※	갈중이		나막신※ 짚신	※나막신 -땅이 질때
		여	갈적삼, 무명누비옷※	갈굴중이, 갈몸뻬	수건	나막신 짚신	

表8. 農夫服

三. 海女服

濟州島라면 누구나 먼저 海女를 聯想하게 되고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生業의 一部를 担当하는 것은 부지런한 女性의 象徵이라 할 수 있다. 海女數는 現在 약三萬名이 넘는다고 한다. 이

숫자는 1970年 五月 水協 道支部의 集計에 따라 99個 漁村契의 契員數가 10.699 名인데 実務者들의 證言에 따르면 実際 漁民으로서 漁村契의 加入率은 ⅓쯤이라 하니 약三萬이 되는 것이다.

濟州島 海女는 언제 어디서 発生했는지 알기 어렵다. 島內 古老들의 말에 의하면 南濟州郡 表善面, 南濟州郡 朝天面 等地가 아닌가 하나 根據를 찾을 길이 없다. 기타 海女에 관한 것은 本 硏究와 거리가 멀므로 省略한다.

海女는 潛女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으며 濟州 風土記 가운데,

「미역을 캐는 女人을 潛女라 일컫고 2月以后부터 5月에 이르기 以前에 바다에 들어서 미역을 캔다. 그 미역을 캘때 소위 潛女는 몸을 벗은 채 바닷가에……」[註16] 라고 하여 裸体로 作業을 했다고 하나 그 当時 織物関係, 文化 文明의 発達

註16) 李 建, 濟州風土記, 朝鮮學報, 第一卷.

狀態로 原始的인 生活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現在는 海女服이 눈을적이며 科學的으로 만들어 졌고 上衣는 물적삼, 下衣는 명칭이 여럿이나 通稱 물소중의라 부르며 물수건 기타 各 用具가 있다.

海女下衣(물소중의)

寫眞 12. 海女 (1955年 西歸浦)

海女服에 대하여는 명칭이 여러가지로 소중기, 소중이, 소중의, 물소중이, 수경, 물옷, 잠수복 해녀복 等으로 부르고 있는데 島內 各地方, 방언에 의해 조금씩 다르나 같은 內衣이며 소중기, 소중이, 소중의는 女子의 속 內服을 일컫는 同語이다.

現在 濟州海女들이 입고있는 물소중의는 過去 婦女子들이 입었던 속內衣인 소중의와 같은 形態인 것으로 보아 조금 前까지도 特別히 作業을

위한 옷이 없었던것 같다.

우선 속내의인 소중의 부터 살펴본다.

김순아씨는 소중의에 대하여

「삼베나 무명으로 만든다. 오른쪽 옆을 트며 약30년전까지도 꼭 입었으나 차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노인들은 전에 입던것을 계속 입는 정도이고 젊은 층에선 전혀 입지 않는다. 四季節 모두 입고 겨울엔 무명으로 여름엔 삼베로 만들며 결혼시는 꼭 새것으로 만들어 입었었다」[註17)] 라고 말하고 있다.

過去 濟州에서 家內手工으로 만든 무명이나 삼베의 幅이 內衣를 만들기에 適当한 치수였으므로 재단時 가위질하는 곳은 허리, 끈, 미, 부분 뿐이며 밑부분은 두접으로 만들게 되어 매우 科学的이며 衛生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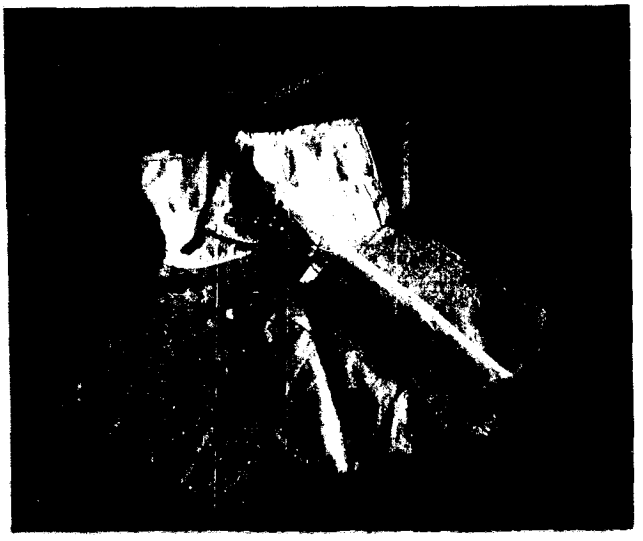
지금 女子들이 입는 속옷과 같은 形態로 오른쪽 옆이 완전히 터져있고 허리는 끈으로 매도록

註17). 1971.8. 김순아 談(女) 68才. 北郡, 涯月面 古城里, 漁農 (漢文受学)

되어 있다.

사진은 海女 作業時 입는 물소중의 즉 海女服 가운데서 下衣이다.

이 海女下衣(물소중의)는 소중의 보다 단단하게 바느질 되어 있고 한쪽 어깨에는 끈이 있으며 단추는 단단하게 잘이 使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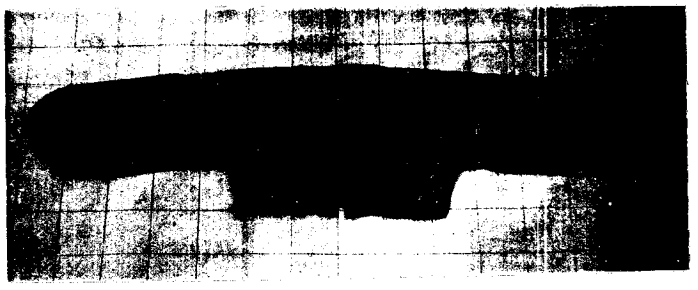
寫眞 13. 海女下衣 : 물소중의

海女上衣(물적삼)

물속에서 作業時 위에 입는 옷으로 材料는 무명이며 저고리와 비슷하면서 부라우스 形態와도 닮고, 소매는 고무줄을 넣어 運動할때 便利하게

되어있고 허리 部分은 넓어서 물속에 들었을때 등위로 올라 붙지 못하도록 주름을 앞뒤로 넣어 매우 科学的이고 活動的이다. 위에는 입지않고 물소중의만으로도 充分하나 날씨가 추울때 입는다 이 옷도 形態로 보아 最近에 発達된 것이다.

10餘年前만해도 적삼이나 그 외 위에 입는 內服을 입었었다.



寫眞 14, 海女上衣: 물적삼.

물수건.

세로 31 cm, 가로 86 cm 정도의 무명으로된 直四角形 모양의 수건이다. 머리에 단단히 매고 위에 물안경을 쓰게 되므로 벗어지지 않는다.

그밖의 海女들의 用具는 태왁, 망시리, 소살

물호미, 갈구리, 전복칼, 눈(물안경)이 있으나 說明은 略한다.

Ⅲ. 牧者服(狩獵服)

忠烈王때 元이 濟州를 占領한 後 蒙古馬를 실어와서 방목하고 達魯花赤로 하여금 管轄케하여 牧馬場을 設置한 것이 始初이다. 물론 氣候條件 立地條件이 適合하여 예로부터 牧畜에 重点을 두고 生業의 一部를 담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皮革을 利用한 衣冠類를 만들어 着用한 것은 짐승의 皮革을 얻기 쉬운점과 牧者들이 추위에 山野를 다니기 위해 防寒用의 여러 皮服이 必要로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皮革을 利用한 것에는 가죽두루마기(皮周衣), 가죽발레, 가죽버선, 가죽신, 가죽감티(감투), 토수等이 있으나 本章에서는 가죽두루마기와 가죽발레에 対해 說明하고 기타는 다음 章으로 미룬다.

가죽옷에 대한 記錄은 比較的 많이 나와있고 오랜 옛날부터 着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寫眞15. 牧者服, 1950年 濟州市吾羅洞

濟州島의 始祖 高, 良, 夫, 三乙那는 처음 皮衣肉食하며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註18]

耽羅記年에는

「或稱儋羅 南島土俗 樸陋衣豕皮 夏居草屋冬寒宮地…」[註19] 로 역시 皮衣類着用을 말해준다.

증보 탐라지에는,

「山間地帶에 사는 사람들은 毛皮周衣 개가죽 벙거지 毛皮脛履를 着用하여 冬節에는 経過하나니 이는 必然 蒙古風俗이다. 海辺에는 四時에 白菜가 青青하지마는 漢拏山 近外는 寒帶地方과 如하

註18) 世宗実錄地理誌 世宗卷 151. p.217.

註19) 金錫翼, 耽羅紀年, (濟州: 瀛州書館 1918). p.3.

야 이러치 않으면 越冬에 困難함으로 露宿山行에 便키 위한 것이라 한다.」[註20]

윗 글에서는 蒙古風俗이라고 하지만 三神人의 伝說에도 太古의 生活과 皮衣肉食을 伝하고 있어 元의 점령 以前에도 島民은 皮衣를 着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만주와 蒙古의 皮衣는 毛의 部分이 內側에 便用했던 것이 普通이지만 濟州의 帽子, 外套, 袴衣, 足衣는 毛가 外部로 되어 있다 毛를 外部로 하는 것은 溫度가 높고 冬期에는 濕潤하여 가죽이 硬化하기 쉽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의 글로 보아 冬節 防寒用으로 毛皮와 毛織衣服을 입었고 毛皮衣는 짐승의 皮의 頭部와 足部, 腰部를 절단하여 약간의 針工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30여年前까지는 입었지만 지금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다음은 가죽옷, 가죽두루마기(皮周衣)와 가죽발

註20). 增補耽羅誌, 前揭書., p.311.

레(바지)에 대해 說明하기로 한다.

가죽두루마기(皮周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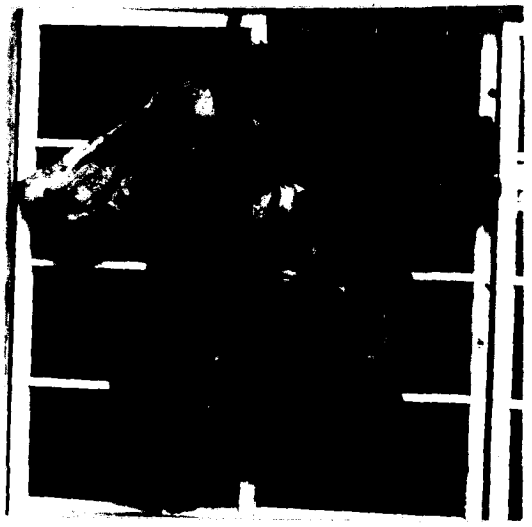
모양은 두루마기와 같으나 비교적 간단하며 單純하다. 두루마기와 같이 옷고름을 使用하지 않고 皮細로 內側으로 매거나 매듭단추를 使用했다.

보통 개가죽을 많이 利用했으나 지달이(너구리) 가죽 또는 쇠가죽을 쓰기도 하여 꼭 어떤 집승의 가죽만을 쓴것이 아니라 되는데로 利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달빈氏는

"어렸을때 많이 보았으나 누구나 다 입지 못했으며 富者라야 해 입을 수 있었고 官家의 모임에도 개가죽 두루마기를 입은 이가 많았다" 고 한다.

다음 사진은 개6마리 가죽으로 만든 개가죽 두루마기이다. 가죽을 적당하게 재단하여 細皮나 정동곤을 꼬아서 針工을 加하여 얽어 만들었고



寫眞 16. 牧者服: 개가죽 두루마기

목부분은 말총을 여러겹 꼬아 기웠다. 돌마귀단추와 끈이 왼쪽 안쪽으로 있다.

이 實物은 지금부터 60여年前에 입었던 것으로 털이 모두 빠지고 가죽도 벌레에 의해 구멍이 나고 전부 낡아서 만질 수 없게 되었다.

사진은 소 ㅅ마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쇠가죽** 두루마기이다. 단추를 돌마귀단추(매듭)로 하여 안쪽으로 달았으며 가는 가죽으로 솔기를 加하여

寫眞 17) 牧者服 : 쇠가죽 두루마기

얽어 매었다. 30年까지도 山村에서 입었으나 殘存物이 귀하다.

가죽발레 (下衣).

「三韓時代의 濟州島는 古記錄에 州胡라 하여 그 体格은 短小하고 言語가 韓族과 같지 아니하며 鮮卑族처럼 머리를 깎았으며 겨울에는 皮衣를 입고 (지금도 許多히 狗皮衣를 입는다) 보통 衣服은 上衣만 있고 下衣가 없으며 牛, 猪等 家畜을 善養하고 一冬節에는 半地 住家에 起居하고 犬豕皮를 着用하며 夏節에는 ····」註2).

윗 글에서 上衣만 입고 下衣를 입지않았다는 것은 두루마기 形態의 윗 옷을 조금 길게 입었음을 말함일 것이다. 古老의 말에 依하면 극히 드물지만 아래 바지 모양의 가죽발레를 입었다 하는데 實物이 없으며 形態는,

「바지와 비슷하나 바지의 부리에 끈을 연결시키

註2). 孫晉泰, 韓國民族史概論, 1948. 서울: 乙酉文化社. p.99.

어 발에 신게 되었고 위 양어깨에도 끈을 연결하였는데 이것은 바지의 길이를 짧게 하므로 허리까지 올라오지 않아 끈을 맬수 없기때문 흘러내리지 않게 함이며 웃 두루마기가 길므로 부디 가죽으로 허리 높이까지 바지를 길게 만들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바지의 위를 짧게 한것은 역시 가죽제품을 귀하게 여겼음을 말해 준다.[註22)]

牧者服의 服飾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頭飾	上衣	下衣	襪、靴、鞋	対象
여름	털벌것(우천시) 정당벌립 삿갓	갈적삼 가죽두루마기 ※도롱이(우천시)	갈중이	가죽버선, 감실신 국수신, 짚신	男
겨울	가죽감투	가죽두루마기	가죽발레 갈중이	가죽버선, 감실신 국수신, 태왈	男

表9. 牧者服

註22). 1971.1. 허 보謙(男) 85才. 濟州市 吾羅一洞 (漢文受学).

五 무당옷

肅宗二八年 51才때 濟州에 赴任한 李衡祥牧師는 堂500, 절500을 불태워 헐게 했다고 한다. 이것은 한 예지만 옛날부터 설움과 搾取, 가난한 生活속에서 자연이 믿을 어떤 神을 스스로 의하여 받들며 依持해 오면서 차츰 生活化 했을 것이며 바다와 산을 生活 根據地로 했던 濟州島民에게는 어쩔수 없이 盛行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現在는 무당을 많이 排斥하여 迷信으로 追放되고 있으나 지금도 海岸 및 山間地方과 市內에서도 3~7日씩에 걸쳐 큰굿이라 하며 富者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服裝을 크게 나누면 관디차림, 군복차림, 두루마기차림, 平服차림, 도포차림 特殊차림이 있다.

관디차림은 正裝으로 首神房이 두루마기를 입은 위에 赤色快子를 입고 黃色관디를 입는다. 女巫일때는 紅色띠를 두르고, 男巫이면 孔雀깃 9개를 단 黑色갓을 쓰고 행전을 치고 짚신을 신는다.

寫眞18. 무당, 1950年, 西歸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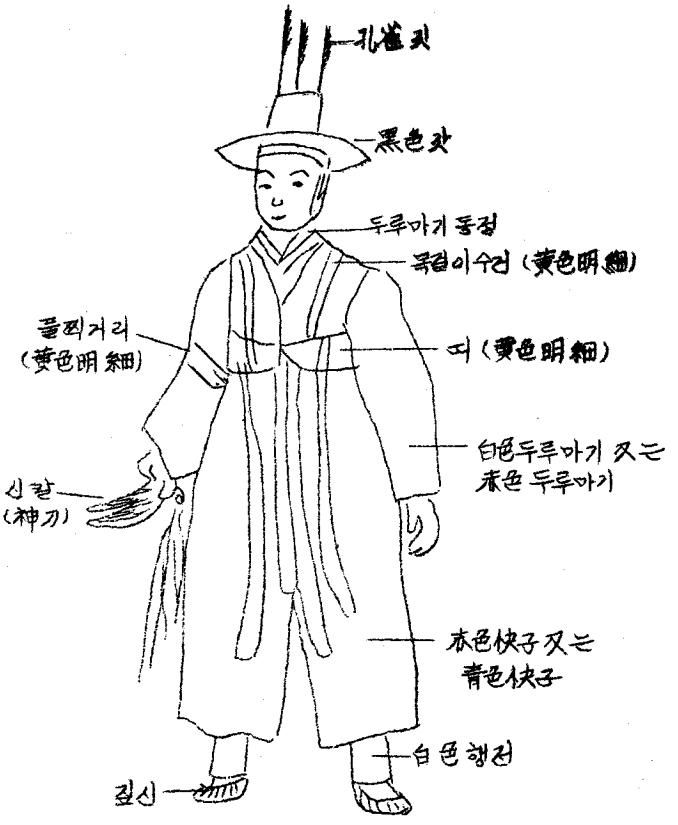
군복차림은 正裝의 관디차림에서 관디를 벗고 갓 대신 송낙을 쓴다.

두루마기 차림은 군복차림에서 快子를 벗는다

平服차림은 平常時 입는 아무옷이나 그대로 차렸을 경우를 말한다.

도포차림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다.

특수차림은 嚴礼나 刑的 要素를 가질때 主人公들의 배역에 맞는 옷을 입는다.



図八. 무당옷. 군복차림.

六.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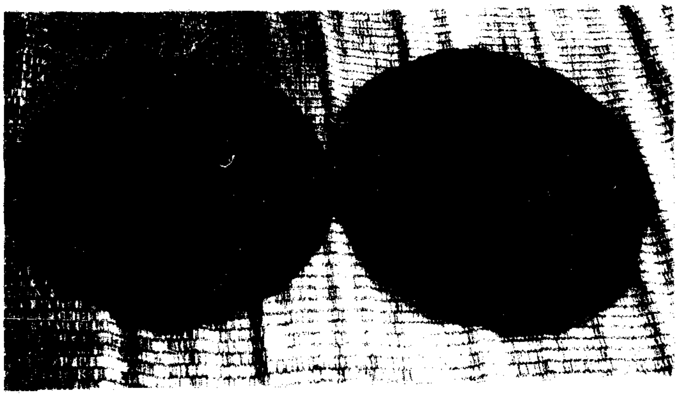
모자류

털벙거(氈笠) : 벙거지.

雨天用 牛毛製로 材料는 쇠털이며 쇠털이 벗겨지는 봄철에 1.2근정도(濟州에서는 1근을 600g으로 환산함). 모아서 촬로 태워 고르게 펴 놓은후 벌임 만드는 枠械에 넣고 잡아 늘어

가며 콩풀을 뽑어서 약대로 두드리며 接着시킨다. 形態는 대패랭이와 같고 山에 갈때 또는 外出時에도 썼고, 特히 쇠태우리(목동)들이 주로 使用했다. 30~40 年前까지도 山間牧者들간에 專業 技術者가 많았으나 지금은 使用하지 않고 만드는 사람도 없다.

임방신氏에 의하면 "李在秀亂(高宗38年 1901年에 있었던 天主教 教難)때에도 彈丸 방패로 使用했었다는 말이 伝해지고 있다"고 한다.



寫真 19, 털벙것.

洪貞杓氏는

"쇠털로 만든 軍帽이며 **本島에서** 軍帽로 쓰여진

것은 신축민호 때 마지막이었고 영라졸(営羅卒)이 1906년 해산될 때까지 였다. 그 後에는 農家에서 利用했고 李在守 宣敎難 때 尹元九 濟州牧使가 官의 사령들을 歸農토록 할 때까지 돌레가 작은 검정 것을 使用했다"한다.

윗글에서 처음 쓰기는 軍用이지마는 그 後 農家에서 이어 使用했고 꼭 農家에서 만이 아니라 全般的으로 使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가죽감투(사투리 : 감태, 감티)

山間部落에서 放牧하는 牧者나 사냥꾼이 防寒用으로 썼다.

寫眞 20), 가죽감투

털이 밖으로 되어있고 뒷쪽을 길게해서 형편에

따라 접거나 내려서 뒤를 덮게 한것이 대부분이다

種類는 오소리감투, 쇠가죽감투, 노루가죽감투,
개털감투 等이 있는데 어떤 材料이거나 막론하고
만들어 썼으며 지금은 使用하고 있지않다.

정당벌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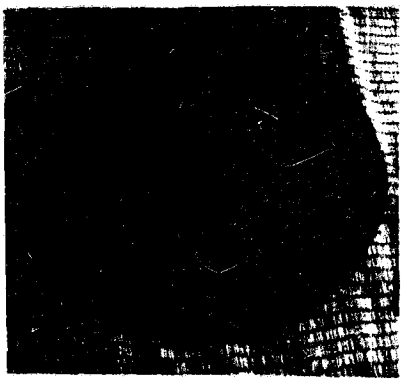
취덩굴로 만든 패랭이와 같은 모양이며 庶民
즉 農漁民이나 山村部落 사람들이 直射光線을 피
하기 위하여 여름에 많이 썼다. 들에 野生하는
덩굴을 걷어다가 물에 추기어 잘 다듬어 만든다.
翰林은 歸德里에서 많이 生産했다.

忠淸 2) 정당벌립

임방신氏에 의하면 "바람이 불면 잘 날아가 버리고 챙이 넓은 것은 걸어 갈때 까딱 까딱 하니까 요사스럽다하여 일명 '약속발립' 이라고 했으며 官家에는 못쓰고 다녔다." 지금은 山村에서 쓰는것도 보기 드물다. 그러나 이 모자는 濟州産 정동(취덩쿨)이 많고 技術保有者가 生存하고 있으니 濟州民间 工芸品으로 권장 発展시키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패랭이

濟州産 上品 죽대(竹)를 材料로 대개 3~7月에 城山里, 水山里, 蘭山里에서 製作되며 男女共同으로 農民들이 쓰는 農夫 所有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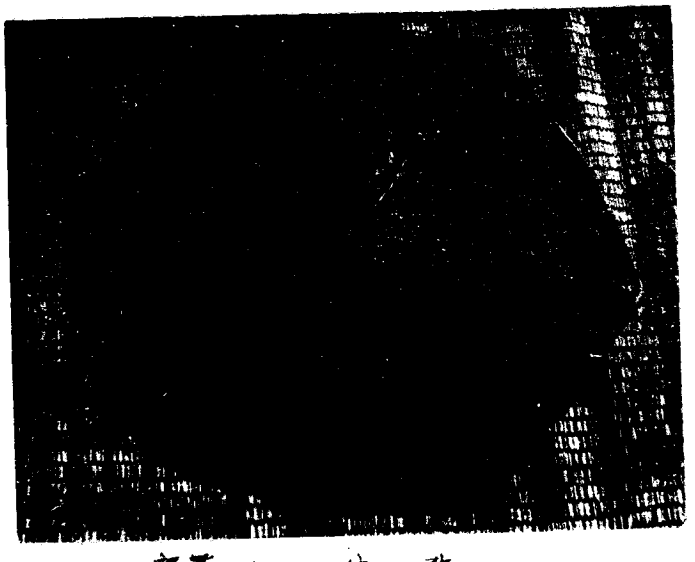
寫眞 22) 대패랭이

濟州 文化錦 洪貞杓氏는 대패랭이(蔽陽子, 平涼子)는 高麗때부터 使用했으며 우리나라 冠類에서 가장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고 一般으로 通用했던 것

이지만 李朝에 이르러 高級 冠帽가 出現함에 따라 庶民層 혹은 <u>역졸들의 제모(소형)가 되었으</u>며 이제 본고장에서는 農家의 차양용으로 使用할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現在 濟州 方言으로 밀낭패랭이, 보리낭패랭이라 하고 밀이나 보릿대로 대패랭이와 같이 만들어 使用하고 있다.

이것은 요즘 陸地部에서 쓰는 것과 똑 같은 形態이나 비단 農夫만이 아니라 外出時 直射光線을 피하기 위하여 쓰고 다닌다. 過去에는 누구나 만들어 自給自足이었으나 지금은 만들지 않고 기계로 多量 生産하여 市販되는 것을 사서 쓴다.



寫眞 23). 삿 갓.

竹으로 엮어 만들고 비 올때 또는 直射光線을 피하기 위한 除雨, 除日 겸용이다. 喪夫 男女 共同으로 쓰며 牧者들도 쓴다. 崔貞淑氏는 "解日 合併前까지는 婦女중들이 外出時 現在의 파라솔을 들고 다니듯이 아주 섬세하고 곱게 만들어 남색이나 고운 청권으로 곱게 테두리를 두루고 머리에 수건을 쓴 위에 쓰고 다녔다"고 한다.

방 립

상주들이 喪을 당했을때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라하여 얼굴을 푹 가릴 수 있게 깊게 만들어 3年동안 外出時 쓰고 다녔다.

남바위, 조바위

寫眞 24. 남바위, 조바위

文子들이 防寒用으로 外出時 썼었다. 崔貞淑氏에 依하면 양반 官職者의 婦文子들의 專用이며 濟州에 들어 온 확실한 年代는 未詳이다.

이외에 풍채, 단선두리 等을 들 수 있으며 陸地部 女性이 쓰던 장옷 쓰개치마도 있었으나 3, 40 여年前 結婚時 礼服으로 使用했을뿐 극소수였다고 한다. 女子 머리에 쓰는 防寒用 쓰게의 残存物은 많으나 간혹 가까운 거리 外出時 쓰는 정도뿐으로 使用치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모자류중에 탕건, 망건, 총모자는 다음 章에 쓰기로 하고, 주로 기타 官職者들이 썼던 것들은 陸地部 形態와 꼭 같아 省略한다.

婦文子들이 쓰는 수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濟州島에서 官職者나 양반집의 婦文子는 장옷을 使用했으나 들일을 많이하는 庶民婦文들은 추운 겨울엔 防寒用으로 또 外出時는 예절을 지키기 위해 꼭 쓰고 다녔다.

모자류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男　子	女　子	비　고
여름	우천	털벙것, 삿갓	삿갓	패리, 방립, 남상주용
	맑음	대패랭이, 정당벌립, 삿갓, 패랭이	대패랭이, 수건	
겨울		가죽감투	남바위, 조바위, 풍채, 만선두리	
사철		갓, 탕건, 망건		
의례용		사모 ※		사모 신랑 결혼시

表10. 모자類

雨衣類 (도롱이)

濟州 사투리로 大靜읍에서는 좁세기라고 부르며 도롱이, 쾡이, 우장등, 名稱이 많다. 길이가 짧은 短雨衣는 도루기라하며 雨中 除草時 입는다

寫眞25. 도롱이

材料는 가을철 除草時 들판에서 누렇게 된 새(띠)를 베어서 엮는다.

안은 조밀하게 짜여있고 겉은 20 cm 정도로 굵게 밑으로 뻗어 내리게하여 雨中엔 빗방울이 흘러내려 스며들지 않으며 겨울철의 추위를 막는데도 적당하여 사철 山間部落 주민의 雨天時 나들이때 입고 다녔다. 現在는 使用하지 않고 있으나 20여年前까지도 保有한 者가 많았었다.

尙樂基氏는

「우장(도롱이)은 農民들의 有一한 우비로서 아무리 심한 소나비에도 빗물이 스며들지 않는것이 特徵이다. 매우 原始的이나 그 만들어진 솜씨가 技巧的이다. 現在에도 간혹 山間部落 農民들에게는 愛用되고 있다. 材料는 띠로 엮어졌으며 길이는 150 cm 정도로서 매우 길기다」고 했다.[註23)]

過去 20여年前엔 市內 民家에서도 男女 不問코 도롱이 입고 삿갓 쓰고 나막신을 신고 다녔

註23) 尙樂基. 前揭書, P.212.

고, 現在 비가 오는날 우산들고, 비옷 입고, 비신(장화) 신은 것과 같은 형식이 있다.

신발류(足衣)

足衣는 발을 被服하는 靴, 鞋, 履, 襪等이다 이 源泉은 東胡系統의 皮靴이고 이것이 南方 農耕社会로 내려와서 草履 麻履等이 된다. 現在 濟州 全域에 걸쳐 過去 祖上들이 신었던 신발류는 身分 階級을 막론하고 形態別로 区分하면 나막신(木鞋), 짚신(草鞋) 가죽버선, 창신, 징신(진신), 태사신(太史靴), 화, 국수신, 輪樏等이 있다.

崔南善의 朝鮮常識 問答에 依하면,

「朝鮮의 北方에서는 가죽신이 보통이요, 南方에서는 짚신이 보통이은 모양인데, 신라 고려시절로 내려오면서 차차 남방으로 퍼지고 특별한 경우에는 놋갓신도 신헛습니다」[註24] 이라고 써있어 濟

註24)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1946. 서울: 東明社, P.50.

州 山間部落 牧者들이 신었던 가죽신은 북방에서 흘러 온 것이지만 民家에서 신던 짚신은 濟州에서도 오랜 세월동안 내려 온 것이 아닌가 한다.

나막신

濟州 사투리로 남신이라고도 하며 나무를 파서 만들어 雨天時 男女老少를 막론하고 신었다 20 여年前만해도 시골에서는 신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밑굽은 앞 뒤로 균형있게 달려있어 굽이 높아 물이 들지 않으나 딱딱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 발이 편치 못하며 잘못 실수로 넘어지면 발이 다치는 불안전한 신이다.

寫眞 26. 나막신.

여름철 비신으로 신지만 겨울철에도 눈이 녹은 질퍽한 길에 신고 다녔다.

한가지 陸地部와는 다른 特徵은 두꺼이 陸地部는 벌어진 반면 濟州의 것은 서로 나란히 되어 있다.

짚신(초신)

耽羅誌에 보면,

「男女好着草履」[註25]

「草帶芒鞵葛織衣石田草屋矮牀扉」[註26] 라고 하여 옛부터 짚신을 신은 기록이 있다. 陸地部 草鞋와 꼭 같으며 굽게 上品으로 만든 것은 미투리라 했고

寫眞27. 짚 신.

註25) 李元眞, 耽羅誌. 1653. p.10

註26) 上揭書. p.206.

庶民이 平常 使用하는 신은 초신 또는 집세기라고 부른다.

材料는 산디짚(陸地部 벼와 같으나 濟州는 乾畓農事가 主이므로 乾畓에서 재배한것)의 소독(꼭짓대) 자른 것을 부엌의 짚재로 걸터 만든 잿물에 담가 密閉시킨 後 얼마 지나면 노란물이 든다. 이것으로 신깍을 꼬고 신바닥은 잘 다듬은 짚과 헝겊을 섞어가며 만든다. 島內 各 家庭의 男性들은 누구나 만들줄 알았다 하나 지금은 전혀 신지않고 있으며 喪主나 護喪用 및 屍身에게 신기는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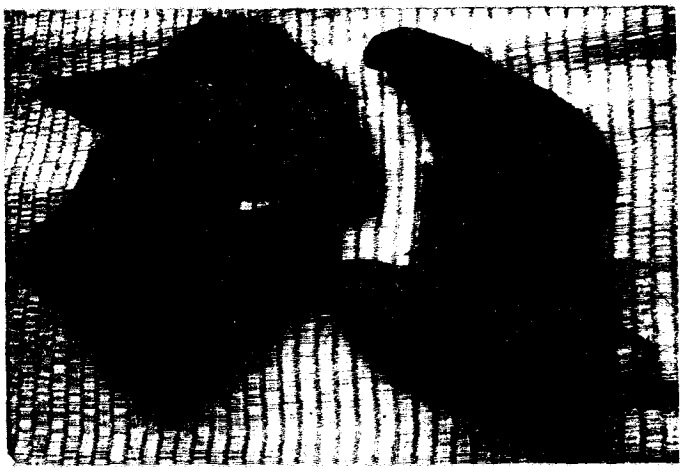
가죽버선(보선)

가죽버선은 오래前부터 狩獵時代 住民들이 사냥에서 얻은 가죽을 利用하여 가죽두루마기를 입고 가죽감투를 쓰게 되었으며 자연히 신발에도 이용했을 것이라 믿는다.

하멜의 표류기에 의하면

「He gave to each of us a good double coat,

trowsers, and two pair of shoes.」[註27] 라고 하여 가죽버선을 憲宗때 当時의 牧使 李元鍈에게 받았음을 伝해주고 있다.



憲冥 28. 가죽버선.

버선과 같은 形態이며 목의 길이가 지금 신는 長靴처럼 길다. 쇠가죽이나 말가죽, 개가죽等의 가죽을 벗겨 털을 깍아내고 소금을 쳐 두면 腐敗하지 않고 부드러워 진다. 가죽에 본을 떠서 大針(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가죽실이나 말총으로 꿰메며 위에 쇠기름이나 돼지 기름을 발라

註27) 李丙燾訳. (하멜著). 하멜漂流記, 1954, p. 206.

윤을 내고 부드럽게하여 신는다. 가죽은 "무끼"라는 道具(칼)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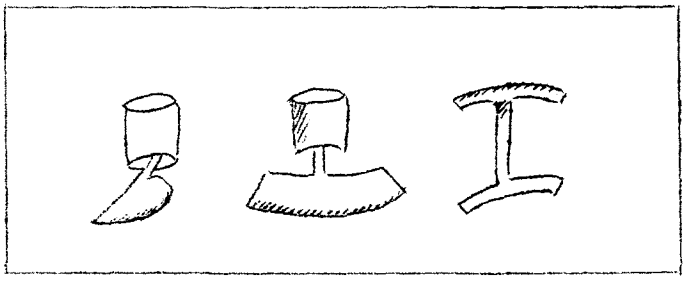


図2. 무 끼

신을 때는 寫眞29와 같이 가죽버선만 신지않고 그 위에 皮革製品으로 짚신과 같은 모양인 감실선, 국시신을 신었고 이것들도 통틀어 가죽신이라고 한다.

寫眞29. 가죽버선과 감실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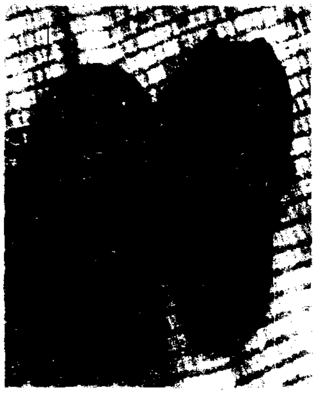
濟州道 民俗 遺物 才一輯에는

「지금부터 약 4~5百年前 火田民들이 만들어 신던 버선이다. 소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발이 상할만큼 뻣뻣하다. 신을때

돼지기름을 문지르고 신으면 부드럽고 윤택해져서 되려 더 따습다. 이로서 우리는 사냥으로서 살아가던 그 옛날 祖上들의 生活 모습을 짐작케 한다. 길이 26cm, 높이도 26cm인 짚은 고동색이다」[註28] 라고 쓰여있다.

윗 글에서 4~5百年前에서 부터 신었다는 것은 確證이 없으나 오래前부터 신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국시신 (극수신)



寫眞30. 국시신

가죽을 가늘게 오려내어 짚신과 같은 方法으로 만들었고 形態도 꼭 같다.

가죽버선을 신고 다시 이것을 신었던 것이다.

註28) 秦聖麒, 濟州島 民俗遺物 第一輯, 1965. p.121.

테 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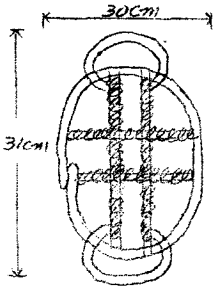


図3. 테 왈

輪樏, 설피라고도 하며 深한 雪 가운데 갈때 눈에 빠지거나 미끄럼을 막기 위해 가죽버선이나 다른 신발을 신은 위에 신었다.

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늘고 잘 구부러지는 나무(삼동나무)로 원을 만들어 井字型으로 固定시킨 뒤 칡넝쿨로 돌려 맨다. 앞 뒤로 발을 넣을 수 있게 日本式「게다」와 같이 만들었다.

창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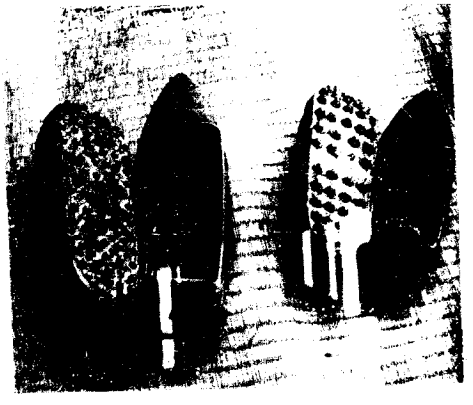
강모열氏의 말에 의하면,

30여년전까지도 날씨 좋은 날, 양반집 규수들이 주로 신었고 시집 갈때는 庶民家의 처녀들도 신었다. 그 後 차츰 民家에도 퍼져 大衆化했고 고무신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男女가 다 호사로 신었고 여자의 것은 더욱 섬

세하며 곱게 만들었다. 겨죽 표면엔 검정 우단으로 되어있고 근래 약150여년전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

寫眞31. 창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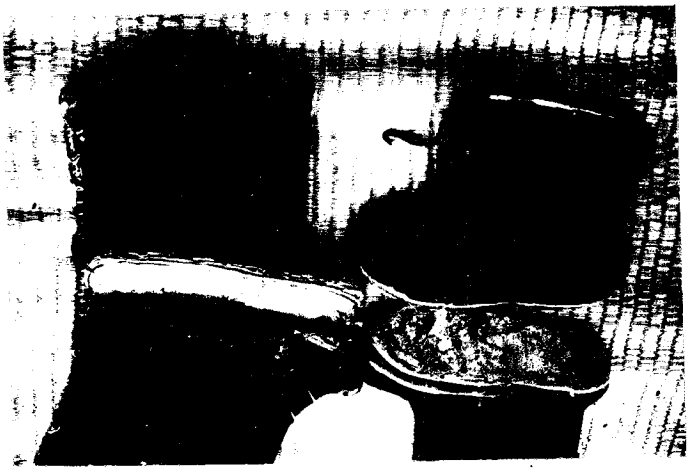
징 신 (긴신)



寫眞32. 징 신.

창신과 같은 形態이나 表面은 가죽으로 되어있고 가죽에 기름을 칠하여 매끄럽게 다듬었으며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졌다. 주로 官吏나 양반의 富有層에서 비오는 날 사용했다.

회



寫眞 33. 회

過去에는 官職者들이 신었지만 약 50년후부터는 結婚式날 新郎이 신었다.

全体를 가죽으로 하고 染色한 것도 있었으나 비교적 技巧를 부려 버선코와 같이 뾰족한 코를 낸 것이 많고 대부분 바닥은 가죽이고 윗 부분

은 우단으로 되어있다.

이외에도 양반 階級이 신었던 신表面에 태사무늬를 놓은 태사신이 있는데 창신과 비슷하므로 省略한다.

이상 몇가지 신발類에 대해서 밝힌 바와같이 庶民과 兩班 사이에 많은 差異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兩班 官吏階級의 婦女子들이 신는 창신은 庶民의 婚礼時에만 使用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現狀이다. 前述한 신발類도 어디까지나 濟州 固有의 것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京樣과 濟州의 二重樣式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氣候 風土関係上, 生業上의 약간의 差異에서 오는 変化가 있을 따름이다.

신발類를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男子	女子	비고
여름	우천	나막신, 징신(진신), 희※	나막신, 징신(진신)	※희: 결혼시 신랑
	맑음	창신, 태사신, 희, 나막신, 진신	진신, 창신, 나막신	
겨울		깁신, 창신, 태사신, 나막신, 가죽버선, 국시신, 감실신, 태왈	진신, 창신, 나막신 ※	※ 나막신: 땅이 질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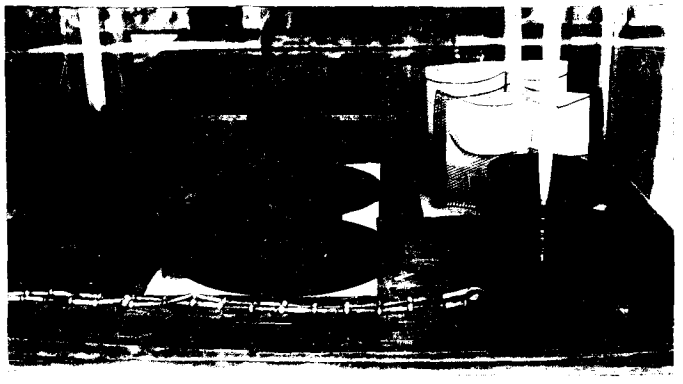
表11 신발類

4. 民間工芸品.

모자류(冠太, 宕巾, 총모자).

모자류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가지 밝힌 바와같이 主로 庶民層과 山間部落에서 自給自足과 勞動 및 生業手段으로 製作 使用하였다.

本章에서는 특히 海岸部落의 婦女子의 手工芸品으로 주로 兩班 官吏階級의 男子들이 使用했고 陸地部로 輸出하여 家內 副業 및 生計 維持의 方便으로 옛부터 많이 만들어 온 冠太, 宕巾, 총모자에 대해서 밝히고져 한다.



寫真34. 모 자 류

「朝鮮常識問答에 탕건의 내력에 대하여,

「朝鮮사람은 네로부터 머리에 무엇 쓰기를 조하하기로 유명하야 처음에는 간단한 頭巾 가튼 것을 쓰고 감투라 니르니 시방 南道에서 喪人이나 쓰는 베두건을 西道에서는 그저 사람들이 예사로 쓰고 다니는 것이 실상 古風 입니다. 이것이 뒤에 중국에서 드러온 복두(幞頭), 사모(紗帽) 따위의 영향을 바다서 오금하고 갈록하게 갭시를 부친 것이 시방 탕건이란 것이니 본래는 헌겁으로 만드럿겟지마는 오래 지날 상으로부터 차차 말총으로 쓰게된 것입니다. 그럼으로 탕건은 본대 독립한 한 모자오 후세에서처럼 버슬한 이라야 쓰는 것이 아니얏습니다.」[註27]

윗 글에서 버슬한 이라야 쓰는것은 후세 風俗이라 한 것과 같이 齊世에서도 버슬한 兩班 官吏級에서 썼고 一般庶民은 外出時에도 使用할 수 없었으나 차츰 緩和하여 日帝時代는 거의 使用했고 成人 男子가 結婚後부터 썼다.

註27) 崔南善, 前揭書, p 49.

洪貞杓氏는

"網巾은 李朝에 부터 사용하였으며 말갈기, 말총으로 만들며, 세종2년(1420년) 처음으로 말총으로 만든 갓신을 명나라의 사신에게 보내어 使用했고 상투와 머리카락을 수습키 위해 網巾 쓰고 宕巾을 쓰거나 그 위에 관을 겹쳐 쓴다.

宕巾은 말총이 재료이며 1392년 부터 머리에 쓰는 관의 일종으로 양반계급의 전용물로 평소에도 사용하고 갓 쓸때 바쳐썼다.

갓은 笠子, 凉笠이라고도 하며 李朝初期부터(1392) 말총 細竹으로 만들며 製造는 말총으로 갓통을 細竹으로 양테를(들레) 별도로 바늘로 떠서 나중에 갓통과 들레를 가는 대(竹)를 그 사이에 끼어 매고 부친다. 백성 통용의 모자로 대중적인 누구나 쓸 수 있는 国民帽이지만 양반계급에서는 들레가 좀 넓고 세밀한 것을 사용했다."고 한다.

本道에서 이런 手工芸品이 特히 婦女子들에 의해 盛行한 理由는 濟州 女性의 勤勉性을 말함이며

生計 維持의 한 方便이기도 했다.

「붉아 가은 헤 데레 도라 앗곡, 너되가는 불 데레 돌아 앗곡, …」이라는 노래가 있드시 밝으면 해를 벗 삼고 어두우면 불을 벗 삼아 生活을 꾸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로부터 濟州는 馬牧畜業이 盛하여 말총을 얻기 쉬운 점에서 島內의 主要한 手工業部門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런 手工芸品은 竹絲製作工程, 양태織造工程, 組立工程等 3단계로 분업작업을 마치고 完全分業으로 이루어지며 갔, 양태는 織造工程만을 해서 忠淸道 等地로 輸出하고 거기서 組立되고 있다.

이 細工芸가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發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水路千里, 陸路千里, 濟州三千里를 들어가니 저 건너 涼太 뜨는 저 큰 악아 저 건너 저산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도 옛 늙은이 죽어지고 中늙은이 하시는 말이 濟州라 한라산이라 합더다. 濟州 한라산 꼭대기에 다 절을 짓고 그 절 밑에 시주하면 慶尙 監司 지나가고 八道 盛宮 거개서 난

다,"는 민요에 있드시 오랜 시일을 거쳐 온 것을 알 수 있다.

金栄敎氏의 無形 文化財 調査 報告書에 보면,

「이 作業들은 주로 濟州市 三陽洞에서 양태를 道頭, 外都에서 총모자를, 禾北에서는 탕건을, 朝天面 일대에서 網巾을 生産하고 있다.

現在 宮中作業은 朝天面 新兴里가 을 總生産量을 내고있고 朝天 五日市場에서 매매되며 경북의 대구, 礼泉, 安東이나 忠清道, 全羅道 等地로 보내고 있다.」[註30]

濟州민요 큰아기 들이에 보면 근면성과 各地方의 特産物, 特殊作業을 말해 준다.

정의골 큰아기 들은 질삼하레 다 나간다.

함덕부근 큰 아기들은 신짝 부비기로 다 나간다

조천부근 큰 아기들은 망근 짜레 다 나간다.

신촌부근 큰 아기들은 양태 짜레 다 나간다.

별도부근 큰 아기들은 탕근 짜레 다 나간다.

(濟州市 禾北洞 宮中)

註30) 金栄敎, 濟州島의 民間工藝,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2号, 1963, p.14.

도두부근 큰 아기들은 모조 틀레 다 나간다.
(濟州市 도두동 · 모자 : 총모자)

번내부근 큰 아기들은 가죽 창신 장시로 다 나간다. (南郞 安德面 和順里)

중문부근 큰 아기들은 미덩 짜레 다 나간다.
(무명 짜리)

涼太는 三陽에서 20年前까지도 집집마다 盛行했고 한데 모여 소일하며 재주를 겨루던 양태청이란 民家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外面하고 있다.

寫眞35. 宮中뜨는 모습 1920年 朝天面朝天里.

「宮中이나 갓은 本土에서 많이 利用해 왔고 忠武地方에도 殘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古

老들의 말에 의하면 5, 60年前에는 흔무나 本土人들이 涼太, 網巾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와 일했으므로 그 기원에 대해서는 細工품에 能한 本土人(男子)들이 入島하여 婦女子에게 가르쳐 주어 農閑期 副業으로 확영받아 전파 되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예로 濟州市 三도之동 1076 번지 崔相根(男64才) 씨는 본고향 慶南 加德에서 60年前 아버지 故 崔鶴淳氏와 入島 2代째 계속 일하며, 1도2동 鄭基模氏(男30才)는 대구에서 入島, 현재 양태, 흥모자, 망巾등 매매…」[註31] 라고 쓰여있다.

여러가지 記錄을 살펴보면,

하멜 표류기에,

「These people were habited like the chinese, except in their hats which were made of platted house-hair.」[註32] 로 묵석은 中国人 비

註31) 金宗敎, 上揭書 p.16.

註32) 李丙燾訳, 前揭書 p.201.

숫하나 말총으로 만든 帽子를 썼다고 하였다.

濟州島 要覽에는

「朝鮮이 오직 農業国으로 工業이 普及되지 못한 만큼 —, 進步의 方面은 즉 洋襪, 羅詁, 貝物曲子, 沃度釀造, 綠棉工場 等의 新說을 보게 됨이며 退步의 方面으로는 全鮮을 供給한다는 婦女子의 手工物 凉太, 宕巾, 帽子等의 消費者가 漸次 減少됨으로 —,」[註33] 라 한것과 같이 消費者의 감소 즉 開化期의 西欧風物의 伝來로 因하여 차츰 使用度가 줄어들어 자연히 生産의 감소를 말해주고 있으며 지금 거의 소멸해 간다는 사실도 [illegible] 수 있는 일이다.

끝으로 凉太, 총모자, 탕건, 製作時 必要로 하는 道具를 명칭만 들어 본다.

凉太는 材料가 本土産粉竹이며 양태판이, 틍애 대발흠, 대칼, 빗대클, 바농대, 고짓대, 머릭, 무럽장이 있고,

총모자의 材料는 말총이며 모자꼴, 끼음꼴, 골걸이, 바농대가 必要하며,

註33). 高禎鍾, 濟州島 要覽. (濟州, 1930). P.36.

탕건 材料는 말총이며 챗대기, 탕건골, 다흐레, 물망, 박죽, 뜸, 연반, 20 cm 길이의 정솔, 탕건바농, 안통골이 必要하다.

(2). 애기구덕

아이를 나서 3日쯤 되면 눕히기 시작해서 보통 3살때까지 사용하게 된다. 대나무를 깍아 엮어 만든 일종의 대바구니와 같은 形態이나 길이가 길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다. 구덕의 中央部에 침대의 스프링과 같이 얽어 매어 보릿짚이나 부드러운 것을 푹신하게 깔고 위에 애기 기저귀나 애기 요이불을 깔고 눕혀 흔들어 재운다.

憲奭36, 애기구덕, 1971년, 濟州市

일손이 바쁜 어머니는 발로 흔들며 일을 하고 들일을 갈때는 등에 지고 나가 적당한 장소에 자리잡아 눕혀 두고 일을 한다. 濟

州 特有의 風俗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10여년전까지도 濟州道民 죽세공이 제품을 만들었으나 지금은 鐵製 제품이 나오고 濟州産 대나무가 귀하여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1969年 제주연감에 道에서 밝힌 民俗工芸 技術者수를 조사한 表이다.

	網巾	宮巾	京太	平京子	삿갓	面紗	보습	토기	나막신	리을	목기
제주시			6		3				1		2
朝天面	2	11									
城山面				8		10			3		
表善面						20					
南原面						23				15	
西歸邑				1		5			2	20	
中文面									1	5	
安德面							3			1	
大靜邑								5			
翰京面								6			
翰林邑									1		
涯月面								1	1		

表12. 民俗工芸 技術者수 1969. 제주도 報表.

Ⅵ. 紡織関係

一. 피복재료.

모시

漢字로는 毛紵라고 쓰고 紵布(苧布)를 말함인데 忠南 舒山의 「舒山모시」가 有名하고 本島는 産地가 못된다.

元史에,

「耽羅 歲進毛施百匹」[註34] 1295年頃 濟州島産物을 高麗 忠烈王 四年(1295)에 濟州島가 高麗로 移管된 것에 대한 礼로 高麗에서 濟州土産物인 苧布 100匹을 보냈다는 기록에 의해서도 高麗때 부터 이미 生産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계속 유지해 왔음은 지금의 古老의 말과 베틀을 짰던 흔적으로 알 수 있다.

강경출氏는 조상부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註34) 元 史 列伝, 耽羅誌.

"오래전부터 모시 → 명주 → 삼베 → 무명 순으로 짜기 시작했고 짜는 베틀이 同一하므로 닥치는데로 짜고 있으나 모시는 별로 짜지 않았다"고 한다.

養蠶

新唐書 流鬼條에,

「凡諸賦稅及風土所產, 賦稅則絹布及粟 …」[註35] 라 하여 오래전 李朝初부터 植栽가 있었던 모양이다. 기록이 별로 없고, 강신항氏는 "古建築物에는 桑材가 많고 損木의 桑樹龍幹은 수餘尺에 達하는 것이 많이 發見되고 있으나 지금은 극소수이다"고 말하고 있다.

김태능氏는,

「三別抄가 濟州에 入據함으로서 영향으로 그 一行들은 絕島內에서 衣食의 自給自足과 軍力 培養을 위하여 農蚕法을 지도 장려시키고 …」[註36]

註35) 新唐書, 流鬼條

註36) 濟州年鑑, 前揭書, p. 153.

윗 글에서 島民에게 養蚕기술의 普及과 아울러 강제적 勸告로 実施함을 말해 주며, 耽羅誌에는,

「本道 養蚕은 高麗때부터 있었으나 桑園이 있는 것이 아니오 山麓에 散在한 天然生 桑木에 依하여 飼育하였은 것으로 風土関係上 全島的 普及은 困難하여 適地適作으로 行하여졌던 模様으로서 古蹟義方面에 가장 盛行되었으며, 1913年頃부터 蚕種改良이 始作되얏고 그 后 점차 発展하야 1939年 까지의 年産蚕 百萬石 目標를 계획하고 奨励한 結果 只今에는 年蚕 六千余貫에 達하고 있으며 將來가 大端히 有望하다고 본다」(註37)

윗 글에서 風土関係上 많은 저조가 보인것 같으나, 洪貞杓氏는,

"자츰 桑木을 재배하고 家内에서 양잠법을 실시하여 春夏秋에 많이 生産했으며 특히 토명주가 有名하여 老人들의 겨울옷 마련에 南郡에서는 집집마다 양잠을 했고 방직했다"고 한다.

註37) 增補耽羅誌, 前揭書, p. 341.

베 (삼베)

강경출氏에 의하면, 50년전까지도 삼을 재배하고, 직접짰으나 지금은 전혀 안하며 近向까지도 가끔 주문에 의해 짰지만 현재는 희귀하여 濟州東쪽에서 삼재배는 시골 老人이 하는 정도이나 극소수이다. 무명나기전엔 갈포(칡넝클)로 해 입었다. 山野에 野生한 덩굴을 걷어다가 마디 마디 잘라 물에 담갔다가 가죽을 벗겨내어 만들었고 정갈피 신도 해신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한다. 삼베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으나

韓国 民族史 개론에,

「夏節의 衣服으로서는 麻葛楮等 纖維를 利用하여 織布하는 方法을 알았으니 그것은 紡石重의 発見됨으로해서 推察할 수 있다.」 註38).

濟州 년감에 김태능氏는,

「仁祖七年이래 濟州民의 出陸을 禁止 — 純祖末에 이르기 까지 2世紀間 濟州 居民을 좁은 絶島中

註38). 孫晋泰, 前揭書.

에 유패시켜 — 婦女子들은 — 貢布와 軍布를 織造하며 軍用과 各司에 貢納하는 役을 強要 当하였던 것이다」[註39] 라고 하여 여기서도 島民의 스스로 전달하지 않고 強要에 의해 이끌려 갔음을 말해주며 本島에 더욱 重点을 둔 것은 삼베치기에 적합한 氣候와 風土때문 이었다고 본다.

寫真 37. 베짜는 모습, 1971. 南劇 中文面

木 棉

木棉의 沿革에 대하여는 比較的 온화한 氣候

註39) 済州年鑑, 前揭書, p.163.

로 過去엔 많은 山野에 많이 재배하여 自給自足으로 現在까지 発達하여 옴을 알 수 있다.

洪貞杓氏에 의하면,

"400 여년전 本島 南部에 栽培하였고 1704~5年頃 日人 漁民이 入島하여 日本式 漁撈를 輸入하는 同時 漁具用 棉系의 需用이 增加 되었고 木浦에서 陸地棉의 試作이 成功되어 1910年 濟州 種苗場 支場에서 처음으로 陸地棉의 栽培가 成功되어 在來棉보다 훨씬 많이 栽培하게 되었다.

現在도 濟州 西部 特히 過去에 本産地인 大靜에서는 山間마을에서 栽培되고 있으나 극소수 이며 翰林面이 主産地였다."고 한다.

織物中 가장 늦게 入島하여 最近까지 盛行하였음은, 現在 散在해 있는 무명, 베틀의 殘存과 목화씨 빼는 씨아를 흔히 찾을수 있고, 20년전까지 집집마다 所有하고 있었으나 收支関係上 까지 않으며 이제는 이불솜을 하기위해 栽培한다는 古老들의 談話를 通해 알릴 수 있었다.

이상 네가지 織物材料 및 現況에 対하여 열거

한 바와같이 島內 婦女子들이 自給自足으로 한때는 国家 시책으로 또는 強制 부역으로 꾸준히 発達하여 옴을 볼 수 있으나 機械文明의 輸入과 合成섬유의 出現으로 完全 쇠퇴일로에 있다.

二. 紡 織

예로부터 베틀에 의지하여 自給自足해 왔으나 西欧 機械文明이 導入됨에 따라 차차 退步하면서 小規模的이나 여러곳에 織物工場이 서게 되었다.

島內에서 織物工業의 都市라고 불리울 수 있는 곳은 北郡 翰林邑이다.

翰林邑 誌에 보면,

「大東織物社 — 北濟州郡 翰林邑에 있는 織造工場

本邑 管內의 初創으로 設置된 것이다. 6.25 동란 당시 피난민들이 居住케 될 때 仁川 江華島에서 온 盧氏가 経済生活 향상과 織造工業의 各種 技術者 養成 目的으로 西紀 1952年 3月 1日 現 位置인 —, 이로서 本道에서 처음 織

造된 織物은 品質이 좋아 道內 市場 및 木浦市場으로 販売케 되니 날로 盛旺을 이루었다. 그러던中 濟州市에서는 織物工場을 비롯하여 紡織工場이 設置되니 금융자본으로 廃社를 당하였다. 그러나 1956年 同位置에 再 織造工場을 創設하니 一, 年生産을 보면 타올 3500타, 小倉織 2천돈, 모기장 1200枚 였다.

. 信一織物社 — 北濟州郡 翰林邑 所在.

1952年 1月 此地의 基督敎人 信義와 敎會敬化 및 極貧者 救濟, 敎人의 經濟生活을 향상시키고 織造工業의 各種 技術者 養成 目的으로 발족 — 원료 綿系 年 1500貫, 染料 20斤, 生産量, 手織小倉 年 450필, 足打小倉 400필 敎帳 250枚 타올 2500타의 수량이 生産되 織造品은 道內市場으로 販売되며 木浦市場까지 販売된 것이다.

成和織物社 — 北濟州郡 翰林邑 所在

西紀 1953年 2月 大東織物社를 창설하여

운영타가 西紀1956年 現位置로 分設 成和織物로 발족 — 年生産量 타올 1000타, 시마지 1000필. 모기장 800枚. 원료는 부산 木浦 地方에서 구입하여 道內 各市場으로 消化 販売하고 있다.

이시돌 農村 開発 事業協会 翰林手織社 — 北濟州郡 翰林邑, 所在.

1952年 2月 의神父(맥글린치)가 —, 緬羊 飼育을 장려한 바 그 生産되는 原料의 팔 곳이 없으므로 手工業의 育成과 아울러 緬羊 飼育의 전도로 개척하기 위하여 手織 홈스판(Hand weave Homespan) 製織을 始作하였음.

이 手織社는 唯一한 紡織工場으로서 主로 서울 및 光州地方에 輸出되며 外国까지 出品하니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要하는 特殊工業이다."[註40]

이상에서 본 바와같이 6.25이후 本土 陸地部 사람이 入島함과 아울러 많은 시설이 생기게 되

註40) 金玉敏, 翰林邑誌, (濟州: 濟文印刷社, 1963), p.139.

었으나 대개가 타올이나 小倉. 모기장을 만든 정도로 크게 기여한 점은 없다. 또한 地理的 関係上 原料의 購入, 輸出, 販路関係도 난점이 많았고 資本難으로 더욱 発展의 餘地를 잃은 実情이었으나 現在 이시를 農場에서 飼育되는 緬羊의 原毛를 利用하여 各種 毛手織이 製織되는 것은 多幸한 일이며 앞으로 밝은 展望을 보이고 있다

現在 濟州市 光陽에 所在한 商工 장려관 현황을 살펴 보면 生産物의 8% 가 피복材料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翰林手織社에서 내놓는 순모 양장지는 WARP 100%, WEFT 100% Wool 이며 큐오, 純毛 외투지, 케티도 만들고 있으나 自動이 아니고 手織이므로 過去 家内工業과 同一 形態로, 多量 生産이 안되며 市販은 안하고 外国人을 相対로 濟州 観光호텔 (濟州市, 西歸浦所在) 에서 직영 販売하며 서울 기타 地方의 百貨店으로 보내는 정도이다.

이외에 내광지는 한림 2, 三陽 1, 濟州市 2곳에서 生産하여 濟州市에서 소모되며 타올은 제주

시ノ, 장갑은 한림ノ(목장갑), 濟川市ノ곳에서 면장갑을 만들어 道內에서 消費하고 있는 実情이며 모기장지도 濟州市에서 만들었으나 化学纖維가 우세하여 生産하지 않고 있다.

Ⅷ. 結 論

本 論文은 濟州島의 服飾에 대하여 現在를 基点으로 하고 文献과 実物 또한 口傳을 通해서 服飾의 変遷過程과 오늘날의 모습을 民俗学的으로 調査研究한 것이다.

濟州島는 現在까지 二千餘年의 긴 歷史와 함께 外部와의 交易으로 많은 変化를 보이며 発展하여 왔다. 그러나 韓国民이 수千年의 긴 歷史와 함께 他国과의 紐帯로 많은 変遷을 겪어 왔지만 濟州島의 境遇는 属国으로, 流配地로, 또는 産業生産의 手段으로 利用당해온 것이다. 이에 附随하여 여러가지로 陸地部와는 다른 生活様相을 보여왔다. 여기서 服飾面에는 充分한 資料가 없으므로 確證的인 年代와 導入 経路는 알기 어려우나 外的으로 半島本土인 陸地部의 影響을 받아온 것만은 事実이다. 또한 陸地部에서는 中国의 影響을 계속받아 二等遞降原則에 依한 모든 服飾関係 및 交易을 通한 中国系의 生活様式을 받아들인

로으로 알 수 있다.

이에따라 濟州島는 本土의 陸地部와 中国本土 蒙古系統의 影響밑에서 北方系의 樣式을 보이고 있으며 氣候나 位置関係相 또는 生業相 濟州 特有의 二重服飾을 兼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本土 陸地部의 影響으로는 우리 固有한 基本型의 服飾인 치마, 저고리, 바지등과 함께 蒙古系統의 風俗은 蒙古族이 濟州에 入島한 以來로 가죽옷의 利用 및 기타 残存하는 生活 風習 言語等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며, 濟州 特有의 服飾으로는 大陸의 影響을 받으면 서도 本土 陸地部와는 相異한 特色을 지닌 것들을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들은 農夫의 勞動服인 갈옷과 海女의 作業服인 소중의 등이 그것이며 濟州産 말(馬)총을 利用한 帽子 製造며 牧畜을 業으로 하는 山間地方 牧者들의 가죽옷, 가죽버선, 가죽감투 等을 들 수 있다. 물론 가죽옷류는 北方蒙古風俗이 들어온 것이나 앞의 序論에서 밝힌바와 같이 濟州에서 많이 着用하고 存続되어온 것

이기 때문에 濟州樣式으로 본것이다.

대개 二重服飾의 差異는 官職者와 生業民間의 階級差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上層階級은 陸地部의 中央行政 체재하에서의 服飾을 갖추는 것이며, 下層의지배 階級은 本濟州産의 被服材料로 自給自足으로 利用하게 된 것이다.

過去의 濟州는 交通関係로 孤立되어 있기 때문 모든 物質文明의 交流가 늦어졌었고 中央行政府의 그릇된 觀念으로 인하여 실속의 땅을 면치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文明의 発達로 인하여 陸地部와 꼭 같은 生活相을 営爲하며 더욱 日本과의 通商関係로 発展도상에 있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濟州固有의 風俗은 사라져가고 차츰 西欧化해 가고 있다.

이제 西欧文明의 浸透와 빈번한 社会交流로 어느것 하나이나 固有의 特色을 그대로 保存한 것이 드물고, 앞으로의 民俗으로서의 価値를 얼마동안 지니게 될지 疑問이다. 不必要하고 前近代的인 것들은 果敢히 없애버리고 또 淘汰되야 겠

지만 그러나 우리의 얼이 담긴 祖上의 遺産들은 고이 간직하고 다듬어 볼 必要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本島 服飾에 대하여 二千餘年 歷史를 槪括的으로 한데 묶어 頭緖없이 羅列시킨 느낌이며 史的인 考察을 하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 具体的이고 体系的인 整理를 못하고, 또한 蒐集된 많은 資料도 제대로 利用못한 未練을 남긴체 此後 다시 研究의 機会를 가질것을 確信하며 끝내는 바이다.

끝으로 本 論文에 甚深資料를 提供하여 주신 島內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秦聖麒 濟州民俗博物館 長님 및 濟州大学의 金栄敦 敎授님과 멀리 本島까지 來住하시어 始終 指導하여 주신 金東旭 敎授님께 感謝드린다.

參考文献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서울: 韓国研究院, 1969.

_____. "李朝中後期의 女服構造". 亜細亜文化研究, 제3号, 1964.

_____. "朝鮮服飾史". 韓國文化史大系. 제4卷, 1970.

_____. "興德王服飾禁制의 研究". 東洋学. 제一輯. 1971.

金榮敦. "濟州道民의 通過儀禮". 無形文化財 指定資料, 23号, 1966.

_____. "濟州道民의 民間工芸".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제34号, 1967.

金斗奉. 濟州島実記. 濟州: 1932.

_____ 耽羅誌. 濟州: 1933.

金錫翼. 耽羅記年. 濟州: 瀛洲書館, 1919.

全玉敏. 翰林邑誌. 濟州: 翰林邑, 1963.

高炳五: 朴用厚. 元大靜郡誌. 濟州: 博文出版社, 1968.

高禎鍾. 濟州島要覧. 濟州: 1930.

南都泳. "朝鮮時代 濟州島牧場" 韓國史研究. 서울: 1969.

石宙明. 濟州島方言集. 서울: 서울新聞社 出版部, 1949.

_____. 濟州島文獻集. 서울: 서울新聞社 出版部, 1949.

_____. 濟州島隨筆. 서울: 寶晉斎印刷所, 1968.

石宙善. 우리나라의 옷 서울: 光文出版社, 1961.

孫晉泰.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朝鮮文化叢書, 第5輯. 서울: 1948.

_____. "朝鮮民族文概論". 韓國文化叢書, 第11輯, 서울: 乙酉文化社, 1948.

李 建. "濟州風土記" 朝鮮学報, 第一卷.

李能和 朝鮮文俗考. 京城: 東洋書院, 1927.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日楊堂, 1947.

李元鎭 耽羅誌 考系癸巳 (1653)

李勳鍾. 國学図鑑. 서울: 一朝閣, 1969.

吳樂基. "濟州島" 大韓地誌. 제주: 1965

李丙燾訳 (Hendrik Hamel 著) 計図漂流記. 京城, 193

秦聖麒 "南国의 歲時風俗" 濟州民俗文化研究. 濟州: 1969.

_____ 濟州島 民俗遺物. 第一輯, 濟州: 1965

崔南善 朝鮮常識 風俗篇. 서울: 東明社, 1948

玄容駿 濟州島 무속자료의 概観. 濟州, 1965.

世宗実録地理志.

濟州年鑑 濟州: 濟州年鑑社. 1969.

村山智順 "朝鮮の服装" 朝鮮總督府 1927.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学 東洋文化研究所.
報告: 1966.